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편집순서1

(옆 면)

(앞 면)

정책연구 - (관리번호) 연 구 과 제 명 국 가 교 육 위 원 회	정책연구 - (관리번호)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Measures on Private Education 국가교육위원회

편집순서 2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7월 1일

○ 주관연구기관명: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2023년10월24일~2024년7월20일
(9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김 세 완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김 영 식
· 연 구 원 : 이 광 현
· 연 구 원 : 현 혜 정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둠

편집순서2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II. 사교육 현황 분석 ····· 5

1. 학교급별 사교육 이용 현황 변화 추이 ····· 5

가. 사교육비 지출 총액 변화 추이 ····· 5

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 7

1) 전체 학생 대상 ····· 7

2) 참여 학생 대상 ····· 9

다.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0

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변화 추이 ····· 12

1) 전체 학생 대상 ····· 12

2) 참여 학생 대상 ····· 13

2. 사교육 공급자 현황 ····· 15

가. 사설학원 공급 현황 개요 ····· 15

나. 시도별 사설학급 공급 현황 ····· 16

다. 시군구 및 생활업종별 사교육 공급 현황 ····· 18

3. 사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하여 ····· 27

III.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심층 연구 조사: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여 ····· 30

1.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 ····· 30

가. 문화적 상황에 근거한 분석 ····· 30

나.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분석 ····· 32

1) 인적자본론에 근거한 해석 ····· 32

2) 게임이론에 의한 해석 ····· 33
3) 선별 이론에 의한 해석 ····· 34
2. 갈등주의 교육사회학 이론에 의한 해석 ····· 35
3.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교육계의 시각 ····· 37
4. 정책변수의 사교육경감효과 분석 ····· 40
가. 학원시간규제 조례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 40
나. 고교교육 다양화 정책(특목고, 자사고)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 43
다. 대입제도(수시-입학사정관제 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연구 ····· 48
5. 자유학기제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 49
6. 방과후학교, EBS 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 51
7. 교육정책들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 ····· 52
IV.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 54
1. 분석개요와 자료 ····· 54
2. 실증분석 ····· 58
가. 사교육 원인 실증분석결과 ····· 59
1) 사교육 원인 분석 결과 ····· 59
2) 학교급별 사교육 원인 분석 결과 ····· 60
가) 초등학교 사교육 원인분석 ····· 61
나) 중학교 사교육 결정요인분석 ····· 61
다) 고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분석 ····· 62
나. 정책효과 실증분석결과: 선행학습금지법을 중심으로 ····· 63
다. 소결 ····· 65
V. 정책적 시사점 ····· 76
1. 대학생, 현직교사, 연구진과 전문가의 세미나 ····· 76
가. 2024년 대학교 신입생 세미나 ····· 76
나. 현직 교사 대상 세미나 ····· 77
다. 연구진과 교육전문가들과 세미나 ····· 80
2.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80
[참고문헌] ····· 85

○ 표 목차

<표 Ⅰ-1> 2023년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1
<표 Ⅱ-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 ····· 6
<표 Ⅱ-2>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 8
<표 Ⅱ-3> 학교급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 9
<표 Ⅱ-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p) ····· 11
<표 Ⅱ-5> 학교급별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 ····· 12
<표 Ⅱ-6> 학교급별 참여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 ····· 14
<표 Ⅱ-7>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 16
<표 Ⅱ-8> 지역별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 16
<표 Ⅱ-9> 학생수 대비 지역별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 17
<표 Ⅱ-10> 시군구별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개설 현황 (단위: 개, 명, 원) ····· 19
<표 Ⅲ-1> 전 과목에 대한 주당 평균 방과후 학습 시간: 2003년 OECD PISA 부가 조사 · 31
<표 Ⅲ-2> 전 과목에 대한 주당 평균 방과후 학습 시간: 2012년 OECD PISA 부가 조사 · 32
<표 Ⅲ-3> 대학 입학성적 백분위 순위 범주별 평균성적과 월임금 ····· 34
<표 Ⅲ-4> 구 소득수준별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36
<표 Ⅲ-5>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37
<표 Ⅲ-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사교육비 주요 연도별 현황 비교 ····· 40
<표 Ⅲ-7> 1980년대 교육개혁 조치 이후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 ····· 41
<표 Ⅲ-8> 시도별 조례로 정한 학원시간 현황 ····· 41
<표 Ⅲ-9> 학원시간 규제 조치에 따른 사교육시간 감소 효과 ····· 42
<표 Ⅲ-10> 고교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녀교육비 ····· 44
<표 Ⅲ-11> 고교유형별 사교육참여율,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 45
<표 Ⅲ-12> 고교유형별 수학,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교육종단데이터 ····· 46
<표 Ⅲ-13> 특목고 자사고 최근 졸업생 수 ····· 47
<표 Ⅲ-14> 2023년 주요 대학 입학정원 ····· 47
<표 Ⅳ-1>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사교육 관련 Data Set의 장단점 비교 ····· 55

<표 Ⅳ-2> 기존의 연구에서 1인당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 56
<표 Ⅳ-3> 사교육 유형별 1인당 지출액 (단위: 천원) ····· 56
<표 Ⅳ-4> 가구소득구간별 1인당 사교육비 ····· 57
<표 Ⅳ-5> 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 ····· 57
<표 Ⅳ-6> 형제자매수와 1인당 사교육비 ····· 58
<표 Ⅳ-7> 사교육 결정요인 (2013-2020) ····· 66
<표 Ⅳ-8> 초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 67
<표 Ⅳ-9> 중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 68
<표 Ⅳ-10> 고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 69
<표 Ⅳ-11> 고등학교 사교육 유형별 결정요인 ····· 70
<표 Ⅳ-12>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초등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 73
<표 Ⅳ-13>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중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 73
<표 Ⅳ-14>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고등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 74

○ 그림 목차

[그림Ⅰ-1] 전체 실질 사교육 증가율과 실질 소득 증가율의 비교(2014년 ~ 2022년) ····· 2
[그림Ⅰ-2] 교육 단계별 실질 사교육 증가율 비교(2014년 ~ 2022년) ····· 2
[그림Ⅰ-3] 머신러닝으로 추정한 일반인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2024년) ····· 4
[그림 Ⅱ-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7
[그림 Ⅱ-2]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8
[그림 Ⅱ-3] 학교급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10
[그림 Ⅱ-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11
[그림 Ⅱ-5] 학교급별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13
[그림 Ⅱ-6] 학교급별 참여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15
[그림 Ⅱ-7]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 29
[그림 Ⅳ-1]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 72
[그림 Ⅳ-2]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초등학교 지역별 ····· 72
[그림 Ⅳ-3]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고등학교 지역별 ····· 74
[그림 Ⅳ-4]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중학교 지역별 ····· 75

편집순서 3

요 약 문

사교육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그 규모나 증가율이 교육,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우선 사교육의 현황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사교육 이용 현황의 변화를 2007년에서 2022년까지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의 2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2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또한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를 통하여 사설학원은 2023년 현재 88,738 곳으로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심층 연구 조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특정 관점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장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문화적 상황, 경제학 이론, 갈등주의 교육 사회학,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정책변수의 사교육 경감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도, 형제자매 수 등 개인특정적인 요소들과 서울지역 대학 진학계획, 학교소재 지역 특정성 등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다음의 4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 및 수준별 수업, 둘째, 방과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셋째,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넷째,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이다.

편집순서 4

S U M M A R Y

Private education is not a phenomenon unique to South Korea, but the scale and growth rate of its impact on education, society, and the economy are more severe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thoroughly synthesizes and analyzes previous research on the causes of private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se causes, ultimately offering possible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udy first utilized data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investigating changes from 2007 to 2022. While there was a temporary decrease,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consistently rose from 20 trillion won in 2007 to 26 trillion won in 2022, with high school spending changing the least. Additionally, a survey on private education providers showed that as of 2023, there are 88,738 private institutes, indicating that private educa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industry. The study surveyed a wide range of research, avoiding any single perspective on private education. It introduced various theories and results from cultural contexts, economic theories, conflict theory in educational sociology, dissatisfaction with school education, and the mitigating effects of policy variables on private education. Furthermore,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school level,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s, parental employment, number of siblings, plans for university admission in Seoul,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location are all significant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and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Lastly, the study proposed four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ivate education: first, the organization of a regular English course for grades 1 and 2 of elementary school and differentiated instruction by level; second, enhancing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after-school lessons and increasing their funding; third, the operation of variou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granting the right to choose high schools; fourth,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stability of university admission data.

편집순서 5

본 문

I. 서론

사교육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그 규모나 증가율이 교육,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아래 <표 I-1>에 정리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21년의 36.7만 원에 비해 한 해 동안 11.8%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2021년 48.5만 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5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상승률'은 동일 기간의 '실질 소득증가율(2.6%)'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5.1%)' 대비 높은 수준이다.

<표 I-1> 2023년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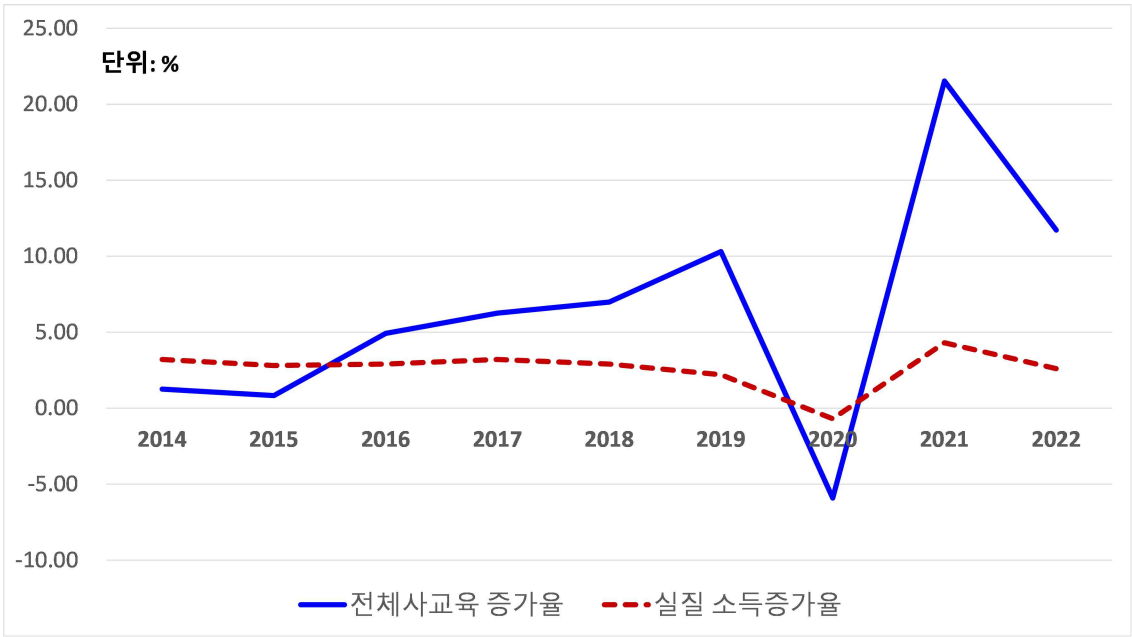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율	
							'22-'21	'22-'20
사교육비 총액(조 원)		19.5	21.0	19.4	23.4	26.0	10.8%	21.0%
초등학교		8.6	9.6	7.6	10.5	11.9	13.1%	38.3%
중학교		5.0	5.3	5.4	6.3	7.1	11.6%	17.7%
고등학교		5.9	6.2	6.3	6.5	7.0	6.5%	3.0%
참여율(%)		72.8	74.8	67.1	75.5	78.3	2.8%p	8.4%p
초등학교		82.5	83.5	69.7	82.0	85.2	3.2%p	12.3%p
중학교		69.6	71.4	67.3	73.1	76.2	3.0%p	5.8%p
고등학교		58.5	61.0	61.6	64.6	66.0	1.4%p	3.0%p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전체	29.1	32.1	30.2	36.7	41.0	11.8%	21.5%
	참여	39.9	42.9	45.0	48.5	52.4	7.9%	8.0%

·출처: 교육부(2023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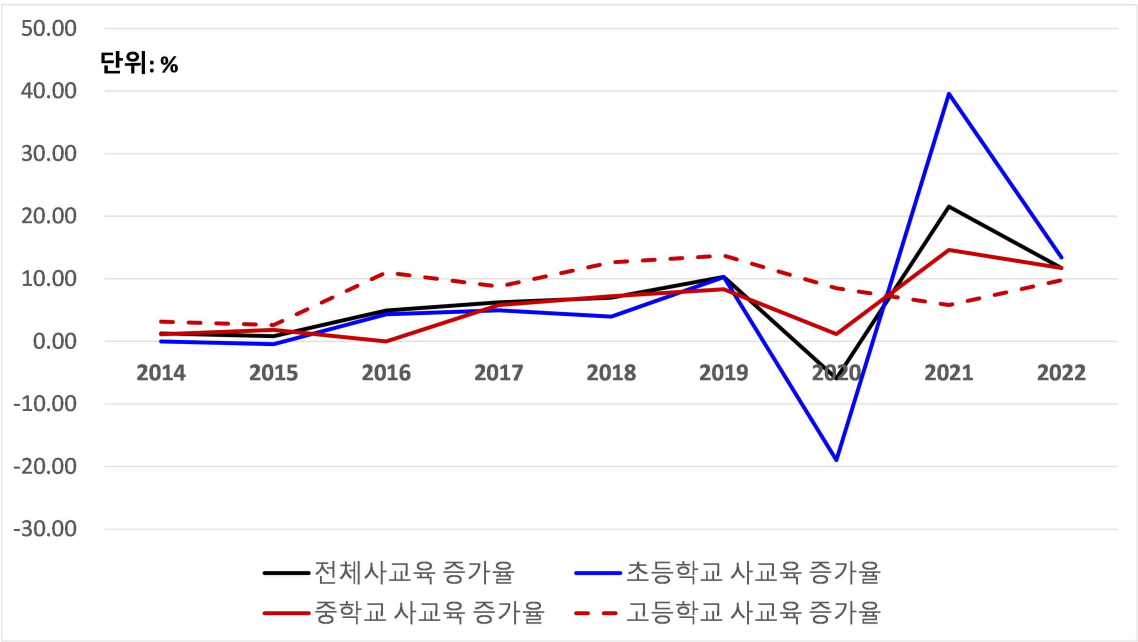
아래 <그림 I-1>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지출이 실질 소득에 비하여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교육이 가계에 주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학생의 부모는 과도한 사교육 지출로 노후준비가 부실해 질 수 있고 소득 계층간 사교육 지출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에게도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또한 <그림 I-2>에서 사교육 지출과 증가율은 교육단계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또한 교육에서 지나친 경쟁과 상업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Ⅰ-1] 전체 실질 사교육 증가율과 실질 소득 증가율의 비교(2014년 ~ 2022년)



[그림Ⅰ-2] 교육 단계별 실질 사교육 증가율 비교(2014년 ~ 2022년)



특히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7.8만원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8만 원으로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가구 및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유발함과 동시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교육·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보다 엄밀하게 분석·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향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사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학계 차원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인과적인 실증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COVID-19 이후 초중고 사교육이 급증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인과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가 포함되어진 자료를 통하여 이전의 연구에 비하여 확장된 실증분석과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개인, 학교, 사회·제도, 환경적 차원의 요인들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최근의 통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학교 현장 및 대입 관련 현실 상황(수시를 준비하고 탈락하면 정시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상황) 등에 근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입제도를 위시한 다양한 요인들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교육비경감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래의 [그림 Ⅰ-3]에서는 머신러닝으로 추정한 일반인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여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사교육에 관련하여 대학, 전교 1등, 대치동, SKY 등의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Ⅰ-3] 머신러닝으로 추정한 일반인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2024년)

· 상대적으로 글씨가 클수록 사교육 관련 기사에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II절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III절에서는 교육개발원의 한국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IV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을 융합하여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V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사교육 현황 분석

1. 학교급별 사교육 이용 현황 변화 추이

가. 사교육비 지출 총액 변화 추이

통계청 사교육비조사[1]가 실시된 처음 2007년의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명목)은 20조 4백 원이었다. 이후 2009년까지 21조 6천억 원 가량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및 2011년 수능 EBS 연계정책(EBS 수능 강의 및 수능연계교재와 수능 출제 간 70% 연계) 발표, 2014년 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해 2015년 17조 8천억 원으로까지 사교육비사교육 지출액은 감소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사교육비 지출액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21조 원에 이르러 금융위기 이전의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2021년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 논란이 부각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1.0% 급증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사교육비조사 실시 이래 가장 많은 26조 원 가량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는 총사교육비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초등과 중등 교육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초등사교육비는 총 사교

---

1)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연혁
-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최초 실시(7월,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MOU체결(12월)
- 2008년: 사교육비실태조사 → 사교육비조사로 통계명칭 변경
- 2009년: 시도 단위 결과공표를 위한 표본 확대(273개교 34,000명 → 1,012개교 44,000명)
- 2010년: 인터넷조사 도입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6월, 10월)
- 2011년: 조사대상 학급의 50% 인터넷조사 실시
- 2012년: 조사대상 중 희망자 인터넷조사 실시
- 2013년: 인터넷조사 전면 실시
- 2014년: 교육부와 복수기관 공동통계 작성 승인
- 2014년: 세종시 추가공표 (전국 16개 시도 → 17개 시도)
- 2015년: 사교육의식조사를 사교육조사에 통합하여 조사
- 2016년: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로 통계명칭 변경
- 2017년: 조사체계 일원화(조사와 입력내용검토 단계를 지방청 직원으로 일원화)
- 2018년: 담임교사 성적조사 방법 변경(초·중학교 미실시, 고등학교만 조사)
- 2019년: 1·2차 동일 표본에서 독립표본으로 변경, 학년별 사교육비 통계 추가공표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 통계작성방법 변경(연간통계→조사대상기간통계)
- 2021년: 연간통계 작성(2020년 소급적용)
- 2022년: 소득구간 “300만원 미만” 추가공표

육비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초등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에 비해 2배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전체 사교육비 7.8% 감소 대비 초등 사교육비 20.4% 감소, 2021년에는 전체 사교육비 21.0% 초등 사교육비 증가 대비 38.3% 증가 양상을 보임으로써 초등사교육비 지출이 외부적인 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중등 사교육비의 경우 외부 요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코로나19 시기 사교육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금융위기 시기에도 감소 폭이 1% 내외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2007	200,400		102,098		56,120		42,181	
2008	209,095	4.3	104,307	2.2	58,135	3.6	46,652	10.6
2009	216,259	3.4	102,309	-1.9	62,656	7.8	51,294	10.0
2010	208,718	-3.5	97,080	-5.1	60,396	-3.6	51,242	-0.1
2011	201,266	-3.6	90,461	-6.8	60,006	-0.6	50,799	-0.9
2012	190,395	-5.4	77,554	-14.3	61,162	1.9	51,679	1.7
2013	185,960	-2.3	77,375	-0.2	57,831	-5.4	50,754	-1.8
2014	182,297	-2.0	75,949	-1.8	55,678	-3.7	50,671	-0.2
2015	178,346	-2.2	75,287	-0.9	52,384	-5.9	50,675	0.0
2016	180,606	1.3	77,438	2.9	48,102	-8.2	55,065	8.7
2017	186,703	3.4	81,311	5.0	48,297	0.4	57,095	3.7
2018	194,852	4.4	85,531	5.2	49,972	3.5	59,348	3.9
2019	209,970	7.8	95,597	11.8	52,554	5.2	61,819	4.2
2020	193,532	-7.8	76,107	-20.4	53,943	2.6	63,482	2.7
2021	234,158	21.0	105,279	38.3	63,480	17.7	65,399	3.0
2022	259,538	10.8	119,055	13.1	70,832	11.6	69,651	6.5

· 출처: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그림 Ⅱ-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 (단위: 조원)

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1) 전체 학생 대상

2007년 22만 2천 원이었던 전체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9년 24만 2천 원까지 늘어난 후, 2012년까지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 23만 6천 원까지 줄어들었다. 2016년부터 사교육비 지출액은 매년 5% 이상 늘어나 2019년 32만 1천 원까지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 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20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에는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21.5%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초로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40만 원을 돌파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들의 사교비 지출액과 유사한 경향성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9% 감소, 2020년 19% 감소, 21년 39.6% 증가 등 전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10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2007년 23만 4천 원이었던 전체 중학생들의 1이낭 사교육비 지출액은 2022년 43만 8천 원으로 늘어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0.4% 감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도 8.5%가 증가

하였음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지출은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Ⅱ-2>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2007	22.2		22.7		23.4		19.7	
2008	23.3	5.0	24.2	6.6	24.1	3.0	20.6	4.6
2009	24.2	3.9	24.5	1.2	26.0	7.9	21.7	5.3
2010	24.0	-0.8	24.5	0.0	25.5	-1.9	21.8	0.5
2011	24.0	0.0	24.1	-1.6	26.2	2.7	21.8	0.0
2012	23.6	-1.7	21.9	-9.1	27.6	5.3	22.4	2.8
2013	23.9	1.3	23.2	5.9	26.7	-3.3	22.3	-0.4
2014	24.2	1.3	23.2	0.0	27.0	1.1	23.0	3.1
2015	24.4	0.8	23.1	-0.4	27.5	1.9	23.6	2.6
2016	25.6	4.9	24.1	4.3	27.5	0.0	26.2	11.0
2017	27.2	6.2	25.3	5.0	29.1	5.8	28.5	8.8
2018	29.1	7.0	26.3	4.0	31.2	7.2	32.1	12.6
2019	32.1	10.3	29.0	10.3	33.8	8.3	36.5	13.7
2020	30.2	-5.9	23.5	-19.0	34.2	1.2	39.6	8.5
2021	36.7	21.5	32.8	39.6	39.2	14.6	41.9	5.8
2022	41.0	11.7	37.2	13.4	43.8	11.7	46.0	9.8

· 출처: 연도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Ⅱ-2]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2) 참여 학생 대상

2007년 28만 8천 원이었던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외부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22년 52만 5천 원으로까지 늘어났다. 즉,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경기 변동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과 2020년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 지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두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18.3%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 시 사교육비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사교육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의 중학교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22년 기준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학교의 경우 57만 5천 원, 고등학교의 경우 69만 7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 학교급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사교육비	증감률
2007	28.8		25.6		31.4		35.8	
2008	31.0	7.6	27.5	7.7	33.2	6.0	38.6	7.7
2009	32.3	4.0	28.0	1.8	35.0	5.3	40.3	4.6
2010	32.6	1.1	28.2	0.7	35.3	0.9	41.3	2.4
2011	33.5	2.6	28.5	0.9	36.9	4.5	42.2	2.3
2012	34.0	1.6	27.1	-5.0	39.1	5.9	44.2	4.6
2013	34.7	2.2	28.4	4.8	38.4	-1.7	45.3	2.6
2014	35.3	1.6	28.6	0.9	39.1	1.7	46.5	2.5
2015	35.5	0.5	28.6	0.1	39.6	1.4	47.0	1.2
2016	37.8	6.5	30.1	5.2	43.1	8.8	50.0	6.4
2017	38.2	1.2	30.7	1.9	43.2	0.2	51.0	2.0
2018	39.9	4.5	31.9	3.9	44.8	3.7	54.9	7.6
2019	42.9	7.5	34.7	8.8	47.4	5.8	59.9	9.1

2020	45.0	4.9	33.8	−2.6	50.8	7.2	64.3	7.3
2021	48.5	7.8	40.0	18.3	53.5	5.3	64.9	0.9
2022	52.4	8.0	43.7	9.3	57.5	7.5	69.7	7.4

· 출처: 연도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Ⅱ-3] 학교급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다.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2007년의 경우 77.0%이었던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까지 68.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 74.8%까지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7.7% 떨어진 67.1%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상승하여 2022년 75.5%, 2022년에는 78.3%까지 증가하여 80%에 가까운 초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의 경우,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대 초반의 사교육 참여율 하락 및 2010년대 후반의 사교육 참여율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사교육 참여율 급감과 같은 특징들을 두 학교급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대 초반의 사교육 참여율 하락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이 타 학교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Ⅱ-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p)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여율	증감률	참여율	증감률	참여율	증감률	참여율	증감률
2007	77.0		88.8		74.6		55.0	
2008	75.1	-1.9	87.9	-0.9	72.5	-2.1	53.4	-1.6
2009	75.0	-0.1	87.4	-0.5	74.3	1.8	53.8	0.4
2010	73.6	-1.4	86.8	-0.6	72.2	-2.1	52.8	-1.0
2011	71.7	-1.9	84.6	-2.2	71.0	-1.2	51.6	-1.2
2012	69.4	-2.3	80.9	-3.7	70.6	-0.4	50.7	-0.9
2013	68.8	-0.6	81.8	0.9	69.5	-1.1	49.2	-1.5
2014	68.6	-0.2	81.1	-0.7	69.1	-0.4	49.5	0.3
2015	68.8	0.2	80.7	-0.4	69.4	0.3	50.2	0.7
2016	67.8	-1.0	80.0	-0.7	63.8	-5.6	52.4	2.2
2017	71.2	3.4	82.7	2.7	67.4	3.6	55.9	3.5
2018	72.8	1.6	82.5	-0.2	69.6	2.2	58.5	2.6
2019	74.8	2.0	83.5	1.0	71.4	1.8	61.0	2.5
2020	67.1	-7.7	69.7	-13.8	67.3	-4.1	61.6	0.6
2021	75.5	8.4	82.0	12.3	73.1	5.8	64.6	3.0
2022	78.3	2.8	85.2	3.2	76.2	3.1	66.0	1.4

· 출처: 연도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Ⅱ-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변화 추이

1) 전체 학생 대상

2007년 7.2시간이었던 전체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 5.7시간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2016년부터 사교육비 참여 시간이 매년 늘어나 2019년에는 6.5시간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5% 가량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2021년에는 사교육 참여 시간이 26.4% 늘어난 6.7시간, 2022년에는 7.2시간으로까지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이해 매년 사교육 참여 시간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6.4시간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2.4%가 줄어들어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4.6시간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초등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7.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2007년 8.9시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6.2시간까지 사교육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 이후 3년 동안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상승하여 6.8시간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경우 6.0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중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7.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 4.5시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3.8시간까지 사교육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6.6시간으로까지 늘어났다. 즉, 2007년에 비해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고교 사교육이 타 학교급의 사교육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 학교급별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2007	7.8		8.9		8.9		4.5	
2008	7.6	-2.6	8.9	0.0	8.4	-5.6	4.4	-2.2
2009	7.4	-2.6	8.6	-3.4	8.3	-1.2	4.3	-2.3
2010	7.0	-5.4	8.2	-4.7	7.7	-7.2	4.1	-4.7
2011	6.6	-5.7	7.8	-4.9	7.2	-6.5	4.0	-2.4
2012	6.0	-9.1	7.0	-10.3	6.6	-8.3	3.9	-2.5

2013	5.9	−1.7	6.9	−1.4	6.5	−1.5	3.8	−2.6
2014	5.8	−1.7	6.6	−4.3	6.5	0.0	4.0	5.3
2015	5.7	−1.7	6.4	−3.0	6.4	−1.5	4.1	2.5
2016	6.0	5.3	6.8	6.2	6.2	−3.1	4.6	12.2
2017	6.1	1.7	6.7	−1.5	6.4	3.2	4.9	6.5
2018	6.2	1.6	6.5	−3.0	6.5	1.6	5.3	8.2
2019	6.5	4.8	6.8	4.6	6.8	4.6	5.7	7.5
2020	5.3	−18.5	4.6	−32.4	6.0	−11.8	5.9	3.5
2021	6.7	26.4	6.8	47.8	7.0	16.7	6.3	6.8
2022	7.2	7.5	7.4	8.8	7.5	7.1	6.6	4.8

· 출처: 연도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Ⅱ−5] 학교급별 전체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조원)

2) 참여 학생 대상

2007년 10.1시간이었던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 8.3시간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7.9시간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나 2021년 8.9시간, 2022년 9.2시간으로까지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이해 매년 사교육 참여 시간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7.9시간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8.5%가 줄어들어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6.6시간까지 감소하였

다.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다시 늘어나 2022년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8.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2007년 11.9시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9.2시간까지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 이후 3년 동안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경우 8.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늘어나 2022년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9.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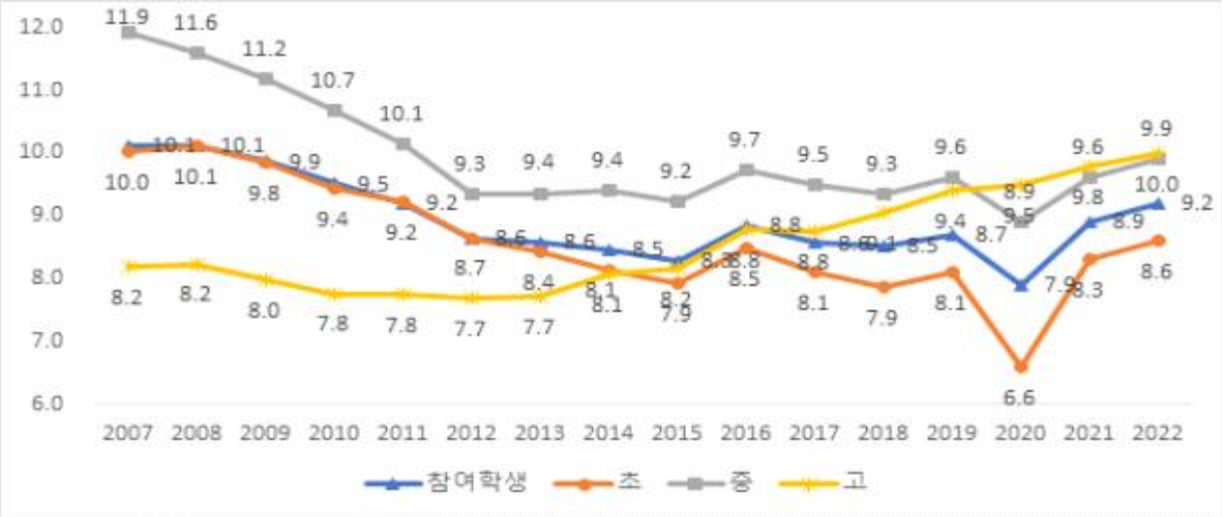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 8.2시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7.7시간까지 사교육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10.0시간으로까지 늘어났다. 즉, 2007년에 비해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해 사교육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학교급별 참여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사교육시간	증감률
2007	10.1		10.0		11.9		8.2	
2008	10.1	-0.1	10.1	1.0	11.6	-2.9	8.2	0.7
2009	9.9	-2.5	9.8	-2.8	11.2	-3.6	8.0	-3.0
2010	9.5	-3.6	9.4	-4.0	10.7	-4.5	7.8	-2.8
2011	9.2	-3.2	9.2	-2.4	10.1	-4.9	7.8	-0.2
2012	8.6	-6.1	8.7	-6.2	9.3	-7.8	7.7	-0.8
2013	8.6	-0.8	8.4	-2.5	9.4	0.0	7.7	0.4
2014	8.5	-1.4	8.1	-3.5	9.4	0.6	8.1	4.6
2015	8.3	-2.0	7.9	-2.5	9.2	-2.0	8.2	1.1
2016	8.8	6.8	8.5	7.2	9.7	5.4	8.8	7.5
2017	8.6	-3.2	8.1	-4.7	9.5	-2.3	8.8	-0.1
2018	8.5	-0.6	7.9	-2.7	9.3	-1.6	9.1	3.4
2019	8.7	2.2	8.1	2.8	9.6	2.8	9.4	3.8
2020	7.9	-9.2	6.6	-18.5	8.9	-7.3	9.5	1.1
2021	8.9	12.7	8.3	25.8	9.6	7.9	9.8	3.2
2022	9.2	3.4	8.6	3.6	9.9	3.1	10.0	2.0

· 출처: 연도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Ⅱ-6] 학교급별 참여 학생 사교육 참여시간 변화 추이 (단위: 조원)



2. 사교육 공급자 현황

가. 사설학원 공급 현황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해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설학원은 88,738개이며, 강사수는 350,8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설학원들의 일시수용 능력인원은 5,925,710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325,329명의 11.5%,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 5,209,029명의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설학원들의 사교육 공급이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설학원들의 월평균 교습 시간은 최고 월 340시간이었으며(최소 월 1시간), 월평균 교습비 최고액은 183만 원, 최저액은 2만 3,786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설 학원 간의 교습시간 및 월평균 교습비 격차가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Ⅱ-7>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구 분	학원수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사수	월평균교습시간		월평균교습비(원)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총 계	88,738	5,925,710	350,827	340	1	1,828,333	23,786
- 학교교과교습학원	80,447	5,234,507	306,455	340	3	1,416,666	23,786
입시검정 및 보습	46,923	3,232,608	182,776	103	5	485,748	115,739
국제화	6,534	609,489	35,773	54	3	776,769	23,786
예능	21,052	785,040	50,201	55	10	524,734	72,946
정보	83	3,193	190	42	4	435,660	31,666
특수교육	12	311	75	44	3	426,923	40,000
종합	3,272	474,543	28,673	340	9	1,416,666	75,000
기타	2,571	129,323	8,767	73	4	795,000	39,375
- 평생직업교육학원	8,291	691,203	44,372	309	1	1,828,333	30,346
직업기술	4,450	292,128	19,934	162	5	1,448,977	65,000
국제화	500	66,853	4,385	69	2	1,012,877	30,346
인문사회	579	133,313	5,443	309	3	1,828,333	51,450
기예	2,119	97,746	8,165	40	1	825,143	50,000
종합	643	101,163	6,445	172	5	1,592,001	130,000

· 출처: 2023년 교육통계연보.

나. 시도별 사설학급 공급 현황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기반하여 시도별로 사설학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학원수는 경기도 24,42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수는 서울이 10만 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지역별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구 분	학원수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사수	월평균교습시간		월평균교습비(원)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총계	88,738	5,925,710	350,827	340	1	1,828,333	23,786
서울	14,832	1,608,661	100,832	340	4	937,717	100,000
부산	5,400	399,408	19,020	105	5	1,520,000	50,000

대구	4,354	241,065	17,091	106	2	1,300,000	30,346
인천	4,421	359,680	16,138	140	8	951,696	51,450
광주	3,488	170,410	10,680	72	4	803,545	62,888
대전	2,312	128,052	10,619	162	9	765,317	110,155
울산	2,616	106,305	8,041	130	8	810,000	98,333
세종	1,029	42,721	3,565	42	16	599,446	208,143
경기	24,422	1,697,940	97,000	247	1	1,828,333	98,333
강원	2,301	135,726	5,682	130	5	1,200,000	40,000
충북	2,474	112,986	6,832	243	10	1,281,685	65,000
충남	3,127	141,979	8,452	90	4	1,187,238	55,000
전북	3,948	147,291	8,949	93	4	627,317	60,000
전남	2,744	122,501	6,042	139	4	1,176,337	31,666
경북	3,779	160,796	10,141	124	3	1,002,428	23,786
경남	6,279	299,601	18,097	200	4	1,202,567	40,600
제주	1,212	50,588	3,646	42	14	571,960	160,778

· 출처: 2023년 교육통계연보.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초중고학생수를 고려하여 학원당 학생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학원당 58.7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학원당 학생수가 7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69.4명, 경북 6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북의 경우 학원당 학생수가 46.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광주 47.7명, 서울 5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당 학생수는 학생수 대비 학원 공급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해당 수치는 낮을수록 학생수 대비 학원 공급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전북, 광주, 서울의 경우 학원 공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강사당 학생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강사 1인당 14.8명의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강사당 학생수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7.5명, 강원 2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강사당 학생수가 7.8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14.1명, 대전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당 학생수 또한 학생수 대비 학원 사교육 공급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해당 수치는 낮을수록 학생수 대비 사교육 공급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서울, 대구,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사교육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9> 학생수 대비 지역별 사설학원 개황 (단위: 개, 명, 원)

	학원수	강사수	초중고학생수	학원당 학생수	강사당 학생수
총계	88,738	350,827	5,209,029	58.7	14.8
서울	14,832	100,832	784,871	52.9	7.8
부산	5,400	19,020	297,085	55.0	15.6
대구	4,354	17,091	240,221	55.2	14.1
인천	4,421	16,138	306,771	69.4	19.0
광주	3,488	10,680	166,287	47.7	15.6
대전	2,312	10,619	152,932	66.1	14.4
울산	2,616	8,041	127,872	48.9	15.9
세종	1,029	3,565	60,558	58.9	17.0
경기	24,422	97,000	1,480,690	60.6	15.3
강원	2,301	5,682	142,979	62.1	25.2
충북	2,474	6,832	163,258	66.0	23.9
충남	3,127	8,452	232,792	74.4	27.5
전북	3,948	8,949	183,616	46.5	20.5
전남	2,744	6,042	178,352	65.0	29.5
경북	3,779	10,141	249,989	66.2	24.7
경남	6,279	18,097	361,744	57.6	20.0
제주	1,212	3,646	79,012	65.2	21.7

· 출처: 2023년 교육통계연보.

다. 시군구 및 생활업종별 사교육 공급 현황

통계청이 매해 발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교습학원은 91,069개이며 이에 243,408명의 강사들이 근무하였다. 어학원은 전체 8,093개이며 31,661명의 강사들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체능학원은 81,413개이며, 이에 154,622명의 강사들이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업종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원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180,575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었으며, 이에 총 429,691명의 강사들이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습학원은 학원수 기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원은 학원수 기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학원의 경우, 학원수 기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수 기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총학원수 기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순으로 많았으

며, 강사수 기준으로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사교육 공급은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타 지역 대비 경기와 서울의 사교육 공급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군구별로 교습학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교습학원은 학원수 기준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서울 양천구,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기도 화성시,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원은 학원수 기준 서울 강남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 서초구, 제주 제주시, 서울 노원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학원의 경우 학원수로는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서울 마포구,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총학원수 기준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김해시 순으로 많았으며, 강사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화성시 및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교육 공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위 강남 3구로 알려진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사교육 공급이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교육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및 서울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대구 수성구의 사교육 공급 또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원수 및 교사수 기준 사교육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대구 군위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등의 도서벽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울릉군의 경우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을 합쳐 학원이 8개, 강사 또한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사교육 공급 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Ⅱ-10> 시군구별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개설 현황 (단위: 개, 명, 원)

		교습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합계	
		학원수	강사수	학원수	강사수	학원수	강사수	총학원수	총강사수
서울	종로구	150	508	54	604	287	635	491	1,747

	중구	74	322	26	212	182	559	282	1,093
	용산구	136	415	50	490	313	739	499	1,644
	성동구	323	1,063	46	434	500	1,069	869	2,566
	광진구	468	1,502	45	199	560	1,195	1,073	2,896
	동대문구	387	1,148	50	454	459	872	896	2,474
	중랑구	376	1,069	31	58	414	816	821	1,943
	성북구	632	1,775	68	403	617	1,276	1,317	3,454
	강북구	300	754	19	74	342	637	661	1,465
	도봉구	428	1,034	15	28	403	733	846	1,795
	노원구	1,094	3,500	121	477	775	1,418	1,990	5,395
	은평구	688	1,763	66	177	667	1,357	1,421	3,297
	서대문구	439	1,438	55	287	470	984	964	2,709
	마포구	588	1,888	98	452	921	2,657	1,607	4,997
	양천구	1,508	5,936	62	352	845	1,811	2,415	8,099
	강서구	850	2,320	85	308	922	1,874	1,857	4,502
	구로구	456	1,850	58	272	535	1,042	1,049	3,164
	금천구	210	575	23	90	301	515	534	1,180
	영등포구	391	1,325	60	358	618	1,274	1,069	2,957
	동작구	589	2,065	67	294	499	1,030	1,155	3,389
	관악구	480	1,735	26	347	616	1,312	1,122	3,394
	서초구	957	4,539	148	1,707	1,071	2,680	2,176	8,926
	강남구	1,889	11,413	278	2,765	1,512	3,971	3,679	18,149
	송파구	1,057	4,219	114	717	1,183	2,606	2,354	7,542
	강동구	830	2,738	72	445	735	1,539	1,637	4,722
	소계	15,300	56,894	1,737	12,004	15,747	34,601	32,784	103,499
부산	중구	26	101	6	32	71	177	103	310
	서구	147	341	17	39	137	264	301	644
	동구	73	128	9	18	89	165	171	311
	영도구	99	174	10	27	121	185	230	386
	부산진구	528	1,371	56	390	529	1,003	1,113	2,764
	동래구	726	2,328	22	139	514	955	1,262	3,422
	남구	457	1,020	42	120	370	722	869	1,862
	북구	512	1,012	55	184	371	667	938	1,863
	해운대구	1,089	2,743	58	353	766	1,374	1,913	4,470
	사하구	510	1,127	63	155	427	718	1,000	2,000
	금정구	442	1,136	37	109	362	638	841	1,883

	강서구	321	640	64	215	271	535	656	1,390
	연제구	373	944	23	34	309	563	705	1,541
	수영구	343	841	12	41	347	628	702	1,510
	사상구	225	503	23	59	235	394	483	956
	기장군	440	880	17	27	312	575	769	1,482
	소계	6,311	15,289	514	1,942	5,231	9,563	12,056	26,794
대구	중구	142	354	33	187	243	631	418	1,172
	동구	564	994	36	85	564	877	1,164	1,956
	서구	161	400	6	14	180	273	347	687
	남구	168	256	7	16	222	323	397	595
	북구	903	2,081	31	124	688	1,203	1,622	3,408
	수성구	1,848	5,025	34	111	985	1,544	2,867	6,680
	달서구	1,319	3,313	55	161	982	1,915	2,356	5,389
	달성군	463	1,002	60	209	389	739	912	1,950
	군위군	11	21			9	10	20	31
	소계	5,579	13,446	262	907	4,262	7,515	10,103	21,868
인천	중구	198	396	19	47	175	399	392	842
	동구	54	154	1	1	59	89	114	244
	연수구	893	2,853	101	10	684	1,657	1,678	4,520
	남동구	797	2,104	73	9	696	1,542	1,566	3,655
	부평구	656	1,690	45	5	613	1,355	1,314	3,050
	계양구	369	996	22	4	355	623	746	1,623
	서구	954	2,492	78	8	795	1,624	1,827	4,124
	미추홀구	407	986	31	3	424	827	862	1,816
	강화군	58	95	8	6	59	79	125	180
	옹진군	6	7	1	2	4	6	11	15
	소계	4,392	11,773	379	95	3,864	8,201	8,635	20,069
광주	동구	167	434	26	64	243	432	436	930
	서구	676	1,669	39	143	532	894	1,247	2,706
	남구	610	1,668	25	240	415	710	1,050	2,618
	북구	795	1,743	43	158	713	1,067	1,551	2,968
	광산구	872	2,306	57	151	672	1,169	1,601	3,626
	소계	3,120	7,820	190	756	2,575	4,272	5,885	12,848
대전	동구	250	559	20	26	284	430	554	1,015
	서구	303	765	22	44	360	582	685	1,391
	남구	1,101	3,146	102	429	852	1,582	2,055	5,157
	유성구	724	1,810	67	232	725	1,383	1,516	3,425

	대덕구	232	508	22	49	232	357	486	914
	소계	2,610	6,788	233	780	2,453	4,334	5,296	11,902
울산	중구	378	813	45	123	364	579	787	1,515
	남구	883	2,063	59	187	645	1,106	1,587	3,356
	동구	280	565	30	64	206	368	516	997
	북구	451	991	52	137	362	626	865	1,754
	울주군	373	730	54	161	318	501	745	1,392
	소계	2,365	5,162	240	672	1,895	3,180	4,500	9,014
세종	세종시	1,160	3,080	58	168	858	1,690	2,076	4,938
경기	수원시 장안구	539	1,446	46	273	460	953	1,045	2,672
	수원시 권선구	570	1,423	32	78	568	1,010	1,170	2,511
	수원시 팔달구	234	779	29	103	302	618	565	1,500
	수원시 영통구	896	2,815	107	447	732	1,698	1,735	4,960
	성남시 수정구	344	1,185	41	194	350	762	735	2,141
	성남시 중원구	249	612	17	25	274	480	540	1,117
	성남시 분당구	1,306	5,681	105	766	1,211	2,865	2,622	9,312
	의정부시	728	2,209	82	305	728	1,436	1,538	3,950
	안양시 만안구	263	662	23	58	335	696	621	1,416
	안양시 동안구	949	3,388	64	205	626	1,488	1,639	5,081
	부천시	1,294	3,940	89	448	1,162	2,424	2,545	6,812
	광명시	602	1,840	30	151	506	1,093	1,138	3,084
	평택시	872	1,919	85	261	747	1,287	1,704	3,467
	동두천시	94	258	4	17	117	229	215	504
	안산시 상록구	404	892	31	79	411	774	846	1,745
	안산시 단원구	492	1,385	33	222	447	889	972	2,496
	고양시 덕양구	866	2,331	63	198	784	1,543	1,713	4,072
	고양시 일산동구	643	2,140	88	358	605	1,293	1,336	3,791
	고양시 일산서구	834	2,229	47	153	576	1,250	1,457	3,632
	과천시	137	354	13	69	94	188	244	611
	구리시	403	1,158	59	219	335	636	797	2,013

	남양주시	1,284	2,989	116	374	1,111	2,059	2,511	5,422
	오산시	363	967	41	140	331	655	735	1,762
	시흥시	864	2,072	98	254	825	1,704	1,787	4,030
	군포시	550	1,422	27	134	467	944	1,044	2,500
	의왕시	208	455	20	51	249	474	477	980
	하남시	464	1,262	53	229	478	1,076	995	2,567
	용인시 처인구	375	1,226	20	54	350	658	745	1,938
	용인시 기흥구	980	2,540	84	232	847	1,735	1,911	4,507
	용인시 수지구	897	3,409	46	233	786	1,699	1,729	5,341
	파주시	858	2,143	51	215	666	1,383	1,575	3,741
	이천시	342	1,139	50	147	330	572	722	1,858
	안성시	300	665	20	65	253	389	573	1,119
	김포시	1,150	2,636	103	349	848	1,823	2,101	4,808
	화성시	2,029	5,237	218	782	1,664	3,449	3,911	9,468
	광주시	494	1,391	35	67	487	958	1,016	2,416
	양주시	304	798	35	103	326	624	665	1,525
	포천시	106	255	8	27	133	234	247	516
	여주시	121	235	10	28	113	187	244	450
	연천군	33	65	4	5	31	46	68	116
	가평군	48	140	14	66	65	105	127	311
	소계	24,489	69,692	2,141	8,184	21,730	44,386	48,360	122,262
강원	춘천시	517	1,029	73	195	499	894	1,089	2,118
	원주시	637	1,365	83	177	593	1,098	1,313	2,640
	강릉시	474	861	19	24	379	566	872	1,451
	동해시	179	299	10	18	131	209	320	526
	태백시	58	104	3	3	60	88	121	195
	속초시	143	302	8	9	129	237	280	548
	삼척시	71	125	4	10	90	110	165	245
	홍천군	56	111	4	6	85	133	145	250
	횡성군	41	89	3	4	37	53	81	146
	영월군	41	68	6	10	39	47	86	125
	평창군	37	44	3	4	45	132	85	180
	정선군	18	27			35	39	53	66
	철원군	50	72	12	16	59	83	121	171
	화천군	21	33	4	8	21	21	46	62

	양구군	18	34	4	7	25	41	47	82
	인제군	22	35	3	11	41	60	66	106
	고성군	15	25	1	2	30	44	46	71
	양양군	29	75	1	2	83	181	113	258
	소계	2,427	4,698	241	506	2,381	4,036	5,049	9,240
충북	충주시	363	765	22	40	304	475	689	1,280
	제천시	194	369	15	48	184	290	393	707
	청주시 상당구	322	647	19	48	315	574	656	1,269
	청주시 서원구	381	1,027	39	164	330	550	750	1,741
	청주시 흥덕구	482	1,072	36	130	425	693	943	1,895
	청주시 청원구	357	808	24	48	325	571	706	1,427
	보은군	24	40	1	3	20	26	45	69
	옥천군	30	53	2	15	32	45	64	113
	영동군	44	79	5	7	43	75	92	161
	진천군	95	230	5	14	88	171	188	415
	괴산군	19	29	2	2	15	26	36	57
	음성군	59	157	4	4	87	143	150	304
	단양군	22	30			25	27	47	57
	증평군	47	106	3	7	49	83	99	196
	소계	2,439	5,412	177	530	2,242	3,749	4,858	9,691
충남	천안시 동남구	338	825	27	66	374	711	739	1,602
	천안시 서북구	872	2,455	90	342	713	1,329	1,675	4,126
	공주시	98	189	13	38	109	164	220	391
	보령시	123	202	17	34	124	176	264	412
	아산시	476	1,043	38	130	412	853	926	2,026
	서산시	273	560	48	122	250	409	571	1,091
	논산시	123	228	14	26	134	215	271	469
	계룡시	106	198	5	8	79	121	190	327
	당진시	246	437	32	84	215	372	493	893
	금산군	34	72			47	66	81	138
	부여군	32	63	2	7	52	74	86	144
	서천군	41	65	6	13	49	65	96	143
	청양군	15	20	2	7	17	24	34	51
	홍성군	148	251	30	72	139	222	317	545

	예산군	65	113	9	15	63	86	137	214
	태안군	40	108	12	24	53	82	105	214
	소계	3,030	6,829	345	988	2,830	4,969	6,205	12,7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888	2,355	55	134	722	1,106	1,665	3,595
	전주시 덕진구	756	1,783	52	163	665	988	1,473	2,934
	군산시	437	801	52	107	417	602	906	1,510
	익산시	432	883	64	146	434	637	930	1,666
	정읍시	132	217	5	10	143	196	280	423
	남원시	89	133	7	29	91	101	187	263
	김제시	68	126	4	6	90	135	162	267
	완주군	126	235	12	23	118	193	256	451
	진안군	9	11	2	3	12	18	23	32
	무주군	21	30	2	2	22	37	45	69
	장수군	12	26	2	2	11	13	25	41
	임실군	16	37			17	24	33	61
	순창군	16	63	1	2	17	23	34	88
	고창군	53	67	4	6	38	59	95	132
	부안군	35	66	1	1	44	66	80	133
	소계	3,090	6,833	263	634	2,841	4,198	6,194	11,665
전남	목포시	430	895	30	67	343	534	803	1,496
	여수시	471	800	52	119	346	528	869	1,447
	순천시	558	1,002	48	121	475	718	1,081	1,841
	나주시	169	324	27	56	137	210	333	590
	광양시	244	464	18	43	200	287	462	794
	담양군	19	27			23	28	42	55
	곡성군	17	23	4	6	16	19	37	48
	구례군	19	26			23	38	42	64
	고흥군	33	61	9	17	42	51	84	129
	보성군	26	47	1	1	20	32	47	80
	화순군	71	134	1	1	62	95	134	230
	장흥군	33	51	2	2	22	28	57	81
	강진군	28	51			30	44	58	95
	해남군	55	119	4	14	58	85	117	218
	영암군	40	73	2	3	36	64	78	140
	무안군	175	387	20	49	134	242	329	678
	함평군	8	14	4	7	15	22	27	43

	영광군	62	112	2	3	40	65	104	180
	장성군	32	58	2	7	22	32	56	97
	완도군	45	62	4	5	30	43	79	110
	진도군	18	36			26	28	44	64
	신안군	6	7			10	18	16	25
	소계	2,559	4,773	230	521	2,110	3,211	4,899	8,505
경북	포항시 남구	429	898	28	46	335	595	792	1,539
	포항시 북구	562	1,056	42	98	479	725	1,083	1,879
	경주시	445	763	40	61	326	429	811	1,253
	김천시	227	371	13	27	187	306	427	704
	안동시	306	609	18	49	230	345	554	1,003
	구미시	868	1,946	89	228	722	1,169	1,679	3,343
	영주시	165	369	6	15	149	249	320	633
	영천시	109	188	6	16	103	136	218	340
	상주시	146	214	2	2	102	142	250	358
	문경시	90	162	2	6	81	108	173	276
	경산시	446	929	53	148	393	596	892	1,673
	의성군	19	27	2	4	28	31	49	62
	청송군	10	13	1	1	13	15	24	29
	영양군	14	15	1	4	8	10	23	29
	영덕군	20	28	5	6	36	45	61	79
	청도군	35	45	1	1	33	40	69	86
	고령군	28	49	1	2	21	24	50	75
	성주군	32	54	1	1	25	33	58	88
	칠곡군	152	313	16	36	161	276	329	625
	예천군	95	148	4	4	73	108	172	260
	봉화군	13	20			14	17	27	37
	울진군	52	84	9	17	55	73	116	174
	울릉군	4	8			4	6	8	14
	소계	4,267	8,309	340	772	3,578	5,478	8,185	14,559
경남	진주시	843	1,690	73	274	699	1,106	1,615	3,070
	통영시	235	467	15	39	205	327	455	833
	사천시	186	435	9	11	168	255	363	701
	김해시	1,309	2,729	83	235	1,037	1,735	2,429	4,699
	밀양시	145	264	11	15	124	183	280	462
	거제시	425	953	47	163	384	677	856	1,793

	양산시	783	1,649	33	110	609	1,060	1,425	2,819
	창원시 의창구	411	831	36	103	362	598	809	1,532
	창원시 성산구	623	1,518	103	316	534	936	1,260	2,770
	창원시 마산합포구	347	648	37	105	324	493	708	1,246
	창원시 마산회원구	356	774	28	85	274	408	658	1,267
	창원시 진해구	421	919	28	47	357	558	806	1,524
	의령군	20	30	1	2	13	16	34	48
	함안군	100	185	5	12	61	92	166	289
	창녕군	61	92	8	22	51	77	120	191
	고성군	64	90	4	4	45	57	113	151
	남해군	54	76	3	4	37	50	94	130
	하동군	34	50	1	1	40	57	75	108
	산청군	24	57	2	4	17	22	43	83
	함양군	37	61	3	3	50	68	90	132
	거창군	106	180	15	27	91	144	212	351
	합천군	33	52	4	4	30	39	67	95
	소계	6,617	13,750	549	1,586	5,512	8,958	12,678	24,294
제주	제주시	1,032	2,373	144	465	961	1,721	2,137	4,559
	서귀포시	282	487	50	151	343	560	675	1,198
	소계	1,314	2,860	194	616	1,304	2,281	2,812	5,757
총합	전국	91,069	243,408	8,093	31,661	81,413	154,622	180,575	429,691

· 출처: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2021).

3. 사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하여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Big-Data의 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들에 포함된 단어들의 순위를 조사하여 보았다. 특정 단어가 사교육 관련 기사에 많이 등장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그 단어와 연관하여 사교육을 인식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사교육 관련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는 웹 스크래핑(web-scaping)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웹 스크래핑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상 웹사이트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여 특정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 스크래핑은 그 용어를

웹 크롤링(web-crawling)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크롤링은 주어진 인터넷 주소(URL)에 접근하여 관련된 URL을 찾아내고, 찾아진 URL들 속에서 또 다른 하이퍼링크(hyperlink)들을 찾아 분류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색인(index)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웹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중복 게재된 기사나 내용 없이 표 혹은 사진만 있는 기사들이 함께 수집된다. 이러한 기사들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저해하고,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없이 지수의 값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초 게재 시점을 해당 뉴스가 나온 시점으로 보고 이후에 게재되는 중복 데이터는 배제하였다.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사이트로는 네이버의 뉴스세션을 활용하였다. 네이버는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사 매체로는 가장 큰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 네이버에 등록되는 사교육 관련 기사에서는 사교육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교육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가정하였다. 해당 기사들에서는 현재 사교육의 상황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시점의 사교육 상황에 대한 기조도 엿볼 수 있다. 네이버 뉴스를 웹 스크래핑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 사이의 총 12개의 언론사에서 3,668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기사의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쪼개 총 45,234개의 문장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문장단위로 쪼갠 이유는, 하나의 기사에 여러 논조의 문장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뉴스기사의 논조를 분류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동반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의 경우는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입시, 왕따의 단어들이 순서대로 가장 많이 사교육 관련 기사들에 등장하였으며 가장 많이 등장한 대학은 300회 이상, 왕따는 20여회 등장하였다. 아래 그림 [그림 Ⅱ-7]에서 각 단어의 등장횟수는 단어의 크기로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교육이 우리나라 사회, 교육, 경제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된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좋은 대학 입학이 사교육 지상의 목표임을 인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Ⅱ-7]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 일반시민들은 글자가 클수록 더 중요한 사교육의 목표로 인식함.

III.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심층 연구 조사: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여

1.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

가. 문화적 상황에 근거한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과열입시경쟁문화 등으로 형성된 교육열이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Bray(1999)의 경우 사교육을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그림자 교육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열, 특히 노력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가 그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Byun & Park(2011)의 경우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아프리칸-아메리칸 학생들을 제외한 여타 인종집단보다 미국의 수능(SAT) 대비 사교육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의 수능 대비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칸-아메리칸 학생들도 다른 인종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나,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아시안 계열 학생과 다른 사교육비 지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OECD의 PISA 부가조사결과에서도 주요 국가간 사교육지출 현황 비교를 통해서도 관련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과거 2003년도 PISA연구의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아시아 국가가 아닌 남유럽국가인 그리스는 주당 5.3시간,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경계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터키는 주당 4.1시간으로 사교육 시간이 조사되고 있어서 사교육(주당 평균 방과후 과외 참여) 시간이 3.8시간인 한국보다 높게 산출되고 있다. 튜터와 함께 하는 공부시간까지 포함해도 한국은 주당 5.1시간으로 그리스의 7.6시간, 터키의 5.9시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 0.5시간으로 다른 여러 유럽국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PISA 부가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반드시 아시아국가의 유교문화로만 원인을 돌리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표 Ⅲ-1> 전 과목에 대한 주당 평균 방과후 학습 시간: 2003년 OECD PISA 부가 조사

국가명	숙제 등 학교교사가 제시한 과제 (1)	튜터와 함께 하는 학습 (2)	과외 수업 참여 (3)	여타 학습 (4)	(2)+(3)	합계
한국	3.5	1.3	3.8	4.2	5.1	12.8
일본	3.8	0.1	0.5	2.0	0.6	6.4
그리스	8.3	2.3	5.3	2.4	7.6	18.3
터키	5.9	1.8	4.1	5.8	5.9	17.6
미국	5.7	0.3	0.4	1.5	0.7	7.9
핀란드	3.7	0.1	0.3	0.9	0.4	5.0
OECD	5.9	0.5	0.9	1.6	1.4	8.9

(1) Homework or other study set by their teachers, (2) working with a tutor, (3) attending out-of-school studies, (4) other study

출처: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OECD Publishing

그리고 2012년도에 수행된 PISA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상업적 방과후 교육을 받은 시간이 주당 3.6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유럽인 그리스(3.0)나 터키(1.9)가 한국 다음으로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0.6시간으로 OECD 평균(0.6)과 유사하게 조사되고 있었다(OECD, 2013). 튜터와 함께 하는 학습시간까지 합산하면 그리스가 주당 5.1시간으로 한국의 5.0시간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 전 과목에 대한 주당 평균 방과후 학습 시간: 2012년 OECD PISA 부가조사

국가명	숙제 등 학교교사가 제시한 과제 (1)	좌동, 단 관리하는 사람 존재 (2)	튜터와 함께 하는 학습(무료 혹은 유로) (3)	과외 수업 참여 (4)	부모 혹은 다른 가족과 학습 (5)	연습을 위해 컴퓨터로 학습 (6)	(3)+(4)	합계
한국	2.9	0.9	1.4	3.6	0.4	1.1	5.0	10.3
일본	3.8	0.8	0.1	0.6	0.3	0.1	0.7	5.7
그리스	5.3	2.0	2.1	3.0	0.9	1.2	5.1	14.5
터키	4.2	2.1	1.3	1.9	1.7	2.3	3.2	13.5

미국	6.1	1.5	0.4	0.3	1.2	1.2	0.7	10.7
핀란드	2.8	0.5	0.1	0.1	0.4	0.4	0.2	4.3
OECD	4.9	1.3	0.7	0.6	1.0	1.2	1.3	9.7

(1) Homework or other study set by their teachers, (2) Homework or other study set by their teachers, with somebody overlooking and providing help if necessary, either at school or elsewhere, (3) work with a personal tutor whether paid or not, (4) attending out-of-school classes organized by a commercial company, and paid for by parents, (5) study with a parent or other family member, (6) work on a computer for practice(e.g. learn vocabulary with training software)

출처: OECD(2013). PISA 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Ⅳ), PISA. OECD Publishing

최근의 연구(유재봉, 최현영, 2018)에 의하면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어서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노력을 강조하는 유교문화, 혹은 아시아적 문화도 사교육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제도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일우, 박명희(2013)는 사교육 수요는 대륙별로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사교육이 확대되었는데, 사교육을 새로운 사회 정치적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된 체제에 잘 대처하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부실한 공교육 상황,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상황으로, 교사의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사교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각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각 개별국가에 대해서 문화적 요인과 함께 역사적, 제도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분석

다음으로 경제학의 이론에 근거한 분석들이 존재한다. 인적자본론, 게임이론 등 경제학의 이론을 적용해서 사교육의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본론에 근거한 해석

인적자본론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향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은우(2004)의 연구는 인적자본론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사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은우(2004)에 의하면,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증

가하지만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의 경우 남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교육투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생순서의 경우, 출생순서가 내려갈수록 즉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를 한 이후, 둘째나 셋째 자녀에게 투자하기에는 가계의 예산제약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쩌면 첫째에 대한 투자 이후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투자를 적정선에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김우영(2002)의 경우 중학교 무상교육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사교육이 정상재(normal goods)이라면 무상교육으로 절감된 가계예산의 일부 금액은 사교육 구입, 즉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우영(2002)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도입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2002년 기준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월 4만 5천원 학비 면제 가정 하에, 한 해 동안 약 190~300억원의 사교육비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학교 1~3학년이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2004년도에는 약 570~900억원의 사교육비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학교 무상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후 실증연구는 부재하다. 이는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무상교육은 일종의 비가역적인 정책으로서 학비절감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무상교육은 유상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참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교육부(2021)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도 2학기에 고3부터 2021년 새 학기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었다. 즉 2020년도에는 고2, 2021년도에는 고1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월 13만원의 학비절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부재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비가역적인 정책으로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무상교육을 유상교육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상교육과 사교육비증가의 연관성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에 대한 지출도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즉, 김우영(2002)의 가정처럼 사교육도 일종의 소비재 중 정상재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2) 게임이론에 의한 해석

백일우(1999), 백일우·김지하(2003), 김지하·백일우(2006)는 사교육비 지출원인을 분석하는 이론 틀로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 사교육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되지만 한쪽이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과외를 받고 다른 한쪽이 받지 않을 경우 사교육을 받는 플레이어가 더 큰 이익-예를 들어 명문대 입학-을 얻게 되는 상황이 설정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과외를 선택하는 전략이 가져다주는 향후 이익(payoff)이 크기 때문으로 내쉬균형이 과외 참여 쪽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게임이론 프레임에 근거하여 백일우(1999)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학부모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간 협력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선별 이론에 의한 해석

다음으로 선별 이론에 의한 해석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 졸업장 효과로 인한 입시사교육비 지출 원인 해석이 존재한다. 장수명(2006)은 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상위 5위권 대학에 입학할 경우 6-10위권에 입학하는 경우보다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향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 최상위대학에 입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노동시장 구조상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표 Ⅲ-3> 대학 입학성적 백분위 순위 범주별 평균성적과 월임금

대학순위	수능 백분위 점수	차이	평균임금 (만원)	차이
1-5위	98.0	1.8	232.91	55.1
6-10위	96.2	3.36	177.81	4.63
11-30위	92.84	6.34	173.18	12.85
31-50위	86.5	5.68	160.33	8.27
50-100위	80.82	8.34	152.06	6.71
101위-	72.48		145.35	

출처: 장수명(2006). 차이는 제시된 표에서 바로 아래 순위 그룹의 점수와의 차이를 의미함

한국의 대학이 단순한 서열 효과, 혹은 선별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선별의 경우도 지나치게 왜곡되게 나타나는 점, 즉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대학의 서열에 의해서 능력차이보다 더 많은 임금차이를 가져오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Ⅲ-3>을 보면 상위 5위권 이내 대학과 6~10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능점수 차이는 1.8점 밖에 나지 않지만, 임금은 월 55.1만원으로 매우 크게 난다. 즉, 능력차이와 비례하면 노동시장의 임금수익률의 차이가 너무

큰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위권 대학의 임금프리미엄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입시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명시적으로 선별이론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명문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현실의 노동시장이 사교육 과잉현상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주장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신용(2018)은 "복지국가는 사교육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나?"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스웨덴, 독일 등의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사교육이 존재하지만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를 소득 재분배 제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으며 직업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한국처럼 과잉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입제도 개편이 아니라 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2. 갈등주의 교육사회학 이론에 의한 해석

사회지위가 높은 계층이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그에 따라 다시 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교육은 일종의 지위재, 즉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임천순 외(2008)에 의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자신의 일정한 지위를 유지시킨다고 본다.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더 나은 고비용 사교육, 대입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임천순 외(2008)에서는 지위재로 번역을 했지만, 위치재로 번역하기도 하는 Position Goods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프레드 허쉬(Fred Hirsch, 1976)가 제안하였다. 허쉬(1976)는 "내가 받은 교육의 가치는 내 직업 전선에 종사하는 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프랭크(Frank, 2020)는 이러한 위치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적 노력은 소비에서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치재적(혹은 지위재적) 군비경쟁", 즉 위치재에 중점을 둔 점증하는 소비패턴을 초래한다고 언급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절히 소비되어야 할 비지위재에 소비감소가 발생하고, 적정한 효율적 투자가 아닌 과도한 소비지출이 지위재 위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상대적 투자(지출) 차이가 향후 한층 중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지위재에 대한 소비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교육의 경우도 이러한 지위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혹은 더 고가의(그에 따라 더 고비용이 되는) 지출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고령화 시대에 본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적절한 저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군비경쟁과 같은 지나친 경쟁적 투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더 많은 고액 사교육컨설팅 등 고비용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투자, 즉 지위재 군비경쟁에서 유리하다.

계층, 혹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실증연구결과를 보면, 강태중(2009), 박현정(2008), 송경오·이광현(2010), 조시정(2023) 등 그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교육비 지출요인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음 <표 14> 참조).

<표 Ⅲ-4> 구 소득수준별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22년도 조사결과)

구 분	2021년(만원)			2022년(만원)			증감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체	32.8	39.2	41.9	37.2	43.8	46.0	13.4	11.8	9.7
300만원 미만	14.9	16.6	16.9	17.3	19.1	17.4	15.9	15.3	2.9
200만원 미만	11.5	11.7	11.8	12.3	13.8	11.4	6.4	18.3	-3.5
200~300만원 미만	16.5	19.3	19.8	19.7	22.0	20.5	19.5	13.9	3.8
300 ~ 400만원 미만	22.6	27.7	29.6	25.0	29.0	30.4	10.8	5.0	2.9
400 ~ 500만원 미만	30.1	35.2	37.7	32.0	37.6	39.4	6.5	6.7	4.4
500 ~ 600만원 미만	34.8	39.8	42.9	36.3	43.0	44.7	4.1	8.1	4.1
600 ~ 700만원 미만	39.4	46.4	52.1	42.7	49.1	53.2	8.4	5.8	2.2
700 ~ 800만원 미만	42.7	53.3	55.7	46.5	54.3	60.1	8.8	1.9	8.1
800만원 이상	53.6	62.0	67.0	59.2	67.9	72.1	10.4	9.4	7.6

출처: 통계청(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표 Ⅲ-5>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사교육비(만원, %)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 체	41.9	46.0	9.7
상위 10% 이내	53.3	59.0	10.8
11 ~ 30%	49.4	54.5	10.3
31 ~ 60%	44.3	47.8	7.9
61 ~ 80%	37.4	41.0	9.6
81~ 100%	29.0	32.3	11.2

출처: 통계청(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의 교육체제,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사회구조 속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과 연관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직업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은 대학을 졸업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지위로의 이동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은 사회계층이동의 주요한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즉, 고등교육기관 자체가 (미래의) 지위재적인 역할을 한다. 입시사교육은 이러한 미래의 지위재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계층에서 상위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선택이다. 앞에서 언급한 인적자본론적 시각과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나, 갈등론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3.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교육계의 시각

네 번째로는 학교교육 혹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학교교육의 낮은 질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학습보충론으로 일컬어지는 시각으로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거나 수월성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김영철, 1997; 김희삼, 2009).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가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교육 투입 요소(기간제 교사 비율, 교원의 평균 학력, 교과교실제 운영 여부, 교사열의)가 일정정도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나(전성일 외, 2003; 김현진, 2004; 김희삼, 2009; 이광현, 2010), 반대로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유한구, 2009: 이광현, 2010; 박철성, 2011).

이광현(2010)에 의하면 2005년도 한국교육종단 1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교사열의가 1점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만족도나 교사성취압력, 학생 중심 수업방식, 교장의 지도성 등의 여타 학교관련 변수들은 사교육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박철성(2011)의 연구는 한국

교육종단 2005~2007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만족도의 세부적 문항들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학부모의 만족도는 창의력 육성, 수업방식, 진로지도 등 총 9개의 변수로 분석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만 수준에 맞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다른 8개의 만족도 변수는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서 사교육시간이나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희삼(2009)의 연구도 한국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007년도 중학교 3학년 자료만 이용하여 영어사교육비로만 제한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결과 영어 교과교실을 운영할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하였고, 교원의 평균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토빗모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수의 정확한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한 변수는 분석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학교교육의 특성만을 포함시킨 연구이다. 송경오, 정성수(2010)는 한국교육종단자료 중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다. 분석결과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해도 1.2%, 0.9%정도의 설명력 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사교육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단위가 아닌 강원도 지역의 강원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학교교육만족도가 사교육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조영진 외,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교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교사의 열의나 학력수준 등이 일정정도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는 심리 변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이 있는 경우도 경감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교교육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사교육비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내국세 비중의 유지 등으로 그동안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데, 이에 따라 내국세의 증가와 함께 교육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표 Ⅲ-6>을 보면 2023년도에는 교육교부금은 75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시도에서 지방교육세 등으로 확보하는 지방세 재원 교육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실제 초중등 교육비는 더 많은 상황이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교육교부금만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하여 비교해 보면 공교육비의 증가율이 사교육비보다 훨씬 가파르다.

아래의 <표 Ⅲ-6>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학생 1인당 교부금 교육예산이 44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99.8만원이 증가하였다. 이 증가액 자체는 2023년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51.5만원보다 93%가 더 많은 금액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면, 증가해온 공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만족도가 높아졌다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그동안 경감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2]. 그동안 교육부는 증가하는 공교육비를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반 정책적 노력-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원성과급제실시, 교장공모제, AI디지털 교육 추진, 첨단 교육시설 개선 투자 등-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한 공교육 질 개선 노력이 크게 결실을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교육예산증가와 함께 진행되어온 제반 교육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으로 만약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공교육의 질 개선이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사교육비가 발생(혹은 증가)한다는 가설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효과적으로 교육재정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교교육 운영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표 Ⅲ-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사교육비 주요 연도별 현황 비교

연도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학생수(교부금 산정 기준)	초중등 총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010	32조 2,980억원	7,338,701명	20조 8,718억원	44.0만원	28.4만원
2015	39조 4,056억원	6,202,171명	17조 8,346억원	63.5만원	28.8만원
2020	55조, 3,722억원	5,437,109명	19조 3,532억원	101.8만원	35.6만원
2021	51조 7,416억원	5,350,399명	23조 4,158억원	96.7만원	43.8만원
2 0	65조 595억원	5,322,321명	25조	122.2만원	48.8만원

2) 참고로 최근 산청군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운영한 '공립학원'이 입시사교육비 경감의 성공 사례가 된 경우가 있다(조선일보 2024년 1월 25일자 보도. "시골마을로 수십명 전학와요". 산청군 공립학원의 기적). 만약 그동안 증액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공립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했다면 어쩌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2			9,538억원		
2 0 23	75조 7,607억원	5,267,312명	27조 1,144억원	143.8만원	51.5만원

출처: 교육부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 2020년도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제외. 사교육비는 통계청 조사결과.

주: 비교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자료의 초중등학생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 1인당 지방재정교부금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산출함.

4. 정책변수의 사교육경감효과 분석

가. 학원시간규제 조례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과열 입시사교육은 과거 60년대 ~ 7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다. 비평준화시기에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시장도 크게 성장하였다. 1973년도에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을 발표하면서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내세울 정도였다. 당시에 시행된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30%가 고입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 5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학부모의 사교육부담 비용이 약 216억으로 발표된 바가 있다(윤정일 외, 2002).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당시 60년대 후반의 연간 216억은 매우 큰 규모로 볼 수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문제는 고등학교 단계, 즉 대학입학 사교육비 팽창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제5공화국 시기인 1980년대에 전면적인 사교육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사교육금지 법안은 2000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학습지나 학교의 보충수업 등 정규 과정의 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교육을 금지한 강력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80년대의 사교육금지 조치는 부분적으로 완화과정을 거치면서 폐지된다. 당시의 사교육 관련 규제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표 Ⅲ-7> 1980년대 교육개혁 조치 이후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

시기	사교육 금지 관련 정책 내용
1980.07.30.	사교육 전면금지 조항 교육개혁 조치 단행
1980.08.07.	과외 단속지침 시행
1981.04.13.	과외 교습 제한, 학습지· 고사지· 녹음테이프 판매금지 조치
1981.07.14.	기술· 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에 한해 일부 학원 수강 허용
1984.01.06	학습부진학생(하위 5% 수준 이하)에 한해 학교 보충수업 허용
1989.06.16	초·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일정 기간 학원 수강 허용
1991.07.22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여름방학 기간 중 학원 수강 허용

1995.08.04.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 중 학원 수강 허용
1997.07.31.	불법 과외 대책 마련 (교내 과외 학습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2000.04.27.	헌법재판소의 위헌 폐지 결정 후 사교육 전면 허용

자료출처: 최정원, 김진영(2022). 1980년대 사교육 금지의 장기적 효과.

<표 Ⅲ-7>을 보면 1980년 사교육금지조치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20여년에 걸쳐서 사교육이 허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사교육이 전면 허용된 이후에 여전히 사교육 과열양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2007년 국가통계기구인 통계청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여 사교육 과열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통계 데이터를 확보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그 후 2006년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지도감독 조항(제16조)에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원시간규제조치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사교육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영업시간 단축)’, ‘학원비 상한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마련되면서 이전 정부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 규제를 전제로 한 정책들에 힘을 쏟은 바 있다(김지하, 2009).

학원시간규제에 대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위헌소송이 있었는데, 모두 합헌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김지하, 2009; 법률신문, 2016). 헌법재판소는 2016년도에 “공익적 가치로 학원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공익적으로 고려해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고 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다.

그 후 학원시간금지 조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으며,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저녁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뉴스1, 2016.9.15.).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원교습시간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Ⅲ-8> 시도별 조례로 정한 학원시간 현황

시도명	학원교과교습학원 시간
서울/경기/대구/광주	초중고 05~22시
인천/전북	초 05시~21시. 중 05시~22시. 고 05시~23시
세종	초 05시~21시. 중・고 05시~22시
대전/강원/충북	초 05시~22시. 중 05시~23시. 고 05시~24시
부산	초・중 05~22시. 고 05시~23시

울산	초・중・고 05~24시
충남/경북/경남/제주	초 05시~21시. 중 05시~23시. 고 05시~24시
전남	초・중 05시~22시. 고 05시~23시 50분

주: 2024년 3월 기준.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고등학교만 놓고 살펴본다면,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5개 시도교육청이 22시까지로 학원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 강원, 충북, 울산은 24시로 사실상 학원시간에 대한 규제의 의미가 없는 자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자정 넘어서까지 수업을 진행할 학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 울산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대한 학원시간규제가 24시까지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울산은 일괄적으로 밤 12시로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학원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되고 있어서 학원교습시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2023.8.16.).

학원시간규제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하(2009)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2005~2007년)를 이용하여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규정된 시도, 11시로 규정된 시도, 12시로 규정된 시도, 그리고 관련 규제가 없는 시도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가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 부모학력, 형제자매의 수, 부모의 학교만족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국공립여부, 평준화여부, 교사 1인당 학생수, 남녀공학여부, 지역변수(서울, 광역시, 시군, 읍면) 등을 설명변수로 통제한 후에 임의효과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0시로 규제한 지역은 제한이 없는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시간이 평균 1시간이 적었다. 학교교습시간을 10시 혹은 11시로 규제한 지역은 나머지 지역, 즉 규제가 12시인 지역과 없는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시간 적었다. 그리고 12시로 규제한 지역은 경감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12시 규제는 사실상 규제로 보기에 어려움을 시사해준다.

<표 Ⅲ-9> 학원시간 규제 조치에 따른 사교육시간 감소 효과

비교	규제지역의 사교육시간 감소
학원시간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사교육시간: 주당 1시간 감소
학원시간 10시 규제 vs 나머지 타 지역	사교육시간: 주당 1.3시간 감소
학원시간 10시 혹은 11시 규제 vs 12시 규제 혹은 비규제지역	사교육시간: 주당 1시간 감소

출처: 김지하(2009).

월평균 수학학원의 사교육비가 40만원일 경우,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주 3일

2시간씩이라고 하면 한달 24시간의 수업료가 40만원인 셈이 된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만 6천원이 되는 셈인데, 주당 1시간 즉 월 4시간이 감소하면 월 평균 6만 4천원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김지하(2009)의 논문에서는 사교육 시간에 비해서 사교육비의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김지하의 논문의 표에서 제시되는 일반 OLS 모형의 회귀계수를 보면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학원시간규제에 따라서 100~40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범수, 강소랑(2017)의 연구는 2011년도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변경한 상황을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2011년도 3월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대구, 광주, 경기, 중학교는 대구, 경기, 전남, 초등학교는 대구, 전남이 학원교습시간을 기존 23~24시(밤 11~12시)에서 20시(밤 10시)로 낮추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과 타 지역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10시로 낮춘 지역의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사교육비가 고등학교는 7%, 중학교는 2%초등학교는 1~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감소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범수, 강소랑(2017)은 학원시간을 평일 밤 10시로 규제했지만 평일 대신에 주말에 학원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체 사교육시간(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은 기존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학원시간을 밤 10시로 낮춘 지역의 주말 학원이용시간이 타 지역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원시간규제를 주중 밤 10시정도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학원영업을 금지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학원비부담경감이라는 목적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도 있기 때문에 주말 학원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서울과 광주 등에서 일요학원휴무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광주드림, 2021.3.5.; 한국경제, 2021.6.21.).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정부 일자리 창출 흐름에 맞는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 바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일부는 일요일에 서울지역의 학원이 문을 닫으면 경기도의 학원으로 가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바가 있다(국민일보, 2020.1.7.). 따라서 학원시간규제나 일요휴무제와 같은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시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교교육 다양화 정책(특목고, 자사고)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면 사교육비가 경감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 교육정책 중 하나는 고교교육 다양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를 증가시킴으로서 고교교육을 다양화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실증적인 측면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사고나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지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영혜 외(2007)의 연구에서는 단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고교유형별 재학생들의 평균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의 자녀교육비 지출액은 일반고 재학생 가구는 90.8만원, 과학고는 112.8만원, 외국어고는 146.2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시에 외고는 대부분 사립이고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의 3배 정도의 학비를 받고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 평균 자녀교육비의 차이가 일반고보다 약 56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과학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과학고가 대부분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재학생보다 22만원 정도 월평균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 기술통계분석이라서 한계가 있는데, 고교유형별 재학생들의 가구소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일반고 재학생들은 421.86만원, 과학고는 651.95만원, 외고는 647.83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녀 교육비 비중을 보면 과학고가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외고는 일반고보다 1.1%p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크게 유의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표 Ⅲ-10> 고교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녀교육비

구분	가구소득	자녀교육비	자녀교육비 비중
전체	469.8	101.09	21.5%
일반고	421.86	90.82	21.5%
과학고	651.95	112.78	17.3%
외고	647.83	146.22	22.6%

출처: 강영혜 외(2007). 모두 월평균이며 단위는 만원임. 자녀교육비 비중은 본 보고서의 연구진에서 산출.

채창균(2009)은 기술통계 분석 외에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구소득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특목고생이 일반고생보다 더 많은지를 분석한 바가 있다. 먼저 채창균(2009)의 논문에서 2007년도 KEEP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교육참여와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1> 고교유형별 사교육참여율,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시간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자만	비참여자 포함	참여자만	비참여자 포함
일반고	64.8	11.5	7.4	32.9	21.2
특목고	81.5	12.8	10.4	41.5	33.5
과학고 조기졸업생	52.0	9.3	4.8	48.5	25.2

출처: 채창균(2009). 단위는 %, 시간, 만원.

단순 기술통계 분석결과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역시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고 조기 졸업생의 경우는 사교육시간은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경우는 비참여자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에서 특목고보다는 낮지만 일반고보다는 월평균 약 4만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채창균(2009)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학교 소재지, 어머니의 학력수준 등을 통제하여 로짓모형, 토빗모형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도 단순 기술통계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교육참여율은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과학고 조기졸업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시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일반고와 과학고 조기졸업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목고 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 연구는 2010년대에 서울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있다. 기술통계 분석에 의한 분석에서는 특목고에 진한한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는 일반고 진학생들보다 영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사고 진학학생들은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모두 일반고 학생들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생들보다 특목고 자사고 진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모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고교유형별 수학,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교육종단데이터

연도	수학사교육비				영어 사교육비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전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전체
2010년	22.37	24.67	25.08	22.85	23.71	29.61	25.65	24.26
2011년	24.39	30.43	28.83	25.30	25.55	37.39	28.15	26.47
2012년	25.59	39.38	36.11	28.52	27.09	40.11	30.56	28.18

2013년	31.31	31.97	43.61	33.06	28.93	25.89	35.84	29.72
2014년	34.54	39.76	41.22	35.72	28.43	23.00	32.70	28.75
2015년	34.75	37.76	41.50	35.84	28.47	23.83	30.51	28.52

출처: 신혜진(2017). 단위: 만원.

주: 2010년~2012년은 중1~중3, 2013~2015년 고1~고3 시기임

신혜진(2017)은 기술통계분석과 함께 위계선형모형으로 사교육비 성장모형(증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모형은 증가현황을 보여주는데, 고교유형별로 각 연도별 차이의 유의성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분석결과에서는 기술통계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한 경우 영어 사교육비는 감소하고 수학 사교육비는 큰 변화가 없게 나타난다. 이 연구의 경우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기술통계분석에서 일반고 진학생은 614명, 특목고 학생은 36명, 자사고 학생은 102명이다. 확실한 점은 과목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이 고등학교 단계 이전인 중학교 시기에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와 함께 수리경제학 모델을 통해서 특목고의 사교육비 관련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있다. 하준경(2010)은 특목고의 정원 확대에 따라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명문대 정원보다 특목고(자사고) 정원이 작은 경우에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 수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정원이 명문대 정원에 근접할 경우, 그리고 초과할 경우에는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목고 정원이 명문대 정원에 근접하거나 더 많아질 경우, 특목고 재학생들에게 대입경쟁압력이 증가하여 특목고 재학생들도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특목고 수가 적고 정원이 적을 경우 특목고 재학생들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반고 재학생은 특목고 정원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명문대 입학가능성이 낮아져서 사교육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특목고 수가 적어서 특목고 학생정원이 명문대 정원보다 충분히 적다면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경쟁역시 치열해져서 일반고 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고의 질이 높을 경우 일반고 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고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높이고 특목고 정원은 명문대 정원에 비해 충분히 작게 함으로써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해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준경(2010)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의 고교유형별 졸업생 수와 명문대/상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도의 특목고와 자사

고 졸업생 수가 18,631명이다. 그리고 2023년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은 57,668명이다. 특목고 자사고 졸업생은 주요 대학 입학정원의 약 32.3%정도이다. 하준경(2010)의 이론을 정확히 검증하기에는 우리가 일반고의 질적 수준,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의 범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살펴만 본다면 현재는 특목고 자사고의 정원이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보다는 적은 편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성균관대학까지의 (최상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19,119명으로 특목고 자사고 졸업생 인원수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만약 이들 최상위권 대학으로만 놓고 보자면, 현재 상황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요 대학 22개 대학으로 넓혀보자면 일반고 학생들 역시 이들 주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 정원과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주요 대학의 정원의 현황을 볼 때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일반고 어느 고교유형에 재학하는지와 상관없이 입시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3> 특목고 자사고 최근 졸업생 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계
2021년	2,443	5,488	1,013	11,898	20,842
2022년	2,389	5,453	1,049	10,454	19,345
2023년	2,360	5,473	1,009	9,789	18,63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표 Ⅲ-14> 2023년 주요 대학 입학정원

대학	입학정원(명)	대학	입학정원(명)
서울대	3,233	동국대	2,778
연세대(서울)	3,471	이화여대	3,167
고려대(서울)	3,884	한국외대	3,377
카이스트	970	UNIST	400
포스텍	320	서울시립대	1,727
성균관대	3,335	국민대	2,966
한양대	3,906	홍익대	2,421
서강대	1,602	GIST	200
중앙대	3,250	세종대	2,360
경희대	4,830	숙명여대	2,180
건국대	3,000	부산대	4,291

계: 57,668명.

출처: 대학 리스트는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서 고교교사 추천 혹은 자녀진학 선호 대학 20위권 대학. 2023년 대학정보공시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충원 자료의 입학정원. 모집정원과 입학정원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대입제도(수시-입학사정관제 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대입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비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다. 특히 수시-학생부종합전형(과거 입학사정관제, 이하 학종)을 통해서 수능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에 근거한 학생선발을 통해서 입시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일단 학부모나 교사의 인식조사결과로는 수능전형과 논술전형이 수시전형(학종)보다 사교육을 더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강기수, 박소영, 2017). 그러나 실질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선회(2015), 안수진(안선회(2015)는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수시선발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시선발제도가 사교육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교육종단자료를 분석한 연구(이필남, 2011)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기혜, 최윤진(2016)의 연구도 한국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인데, 입학사정관 지원 학생이 정시일반 지원 학생보다 논술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오히려 입학사정관제, 학종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기혜 외(2017)의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수시 학종 입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커리어컨설팅비용을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과목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가 많을 경우 정시전형보다 수시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시입시제도가 사교육비 경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혜정, 박성희(2020)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전형, 즉 사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국대상 표집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는 연구이지만,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보다 더 학종이 사교육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학종의 사교육경감효과 클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한국교육고용종단자료를 이용한 최근 분석에서는 수시학종과 정시수능 입학생간의 사교육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연구가 있다. 윤민종(2021)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에 고2, 고3인 분석대상 코호트 학생들의 경우 상위권과 중위권을 제외한 일반(하위권)대학의 경우 정시로 입학한 학생의 사교육비가 12%에서 21%정도 수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위권 대학은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17~26%정도 사교육

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언론사 대학평가 상위 26위, 의대, 교육대, 경찰대 포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수시 혹은 정시입학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위권 대학의 경우 중위권이나 하위권대학과 달리 입학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시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사이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모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윤민종(2021)의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입시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수명(2006)의 연구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윤민종(2021)의 연구 데이터의 분석 시기인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8년도에 32.1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36.5만원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수시입학제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으며 18년과 비교하면 19년도에도 증가해왔다. 대입에서 수능을 폐지하고 모두 수시전형으로 전환시키면 사교육비는 다소간 감소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입경쟁 자체가 여전히 치열하다면 수시준비를 위한 내신사교육과 면접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할 것이며 그에 따른 사교육의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중)하위권대학의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여러 대학들이 수능 성적 없이도 학생을 입학시키는 소위 재직자 전형(직장인 전형)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교대 중에서는 경인교대도 시행 중임).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 즉 중하위권 대학 입학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하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하위권 대입의 경쟁 완화로 인한 것이지 대입제도의 변화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5. 자유학기제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시기에 진로탐색과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진로탐색의 목적이 포함된 정책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시기가 적정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준비를 위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실시되었다. 교과수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동아리, 예술, 체육 진로탐색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이 실시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앤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사교육비도 경감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사교육이 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했다(박윤수, 2017; 이필남, 2020). 자유학기제의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는지, 혹은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덕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상위권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기본교과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양분(2016)은 한국교육종단2013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5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 중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재학한 학생들(표본 중 79.08%)과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표본 중 20.92%)의 사교육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순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배경변수를 통제하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 더 적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유학기제는 사교육비의 증감에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양분의 연구가 발표된 다음 해인 2017년도에는 한국개발원의 박윤수(2017)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박윤수(2017)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김양분(201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박윤수(2017)는 소득계층별로 분석을 추가하였는데,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은 증가하고 중간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은 감소시켜서 전반적으로 계층 간 사교육 투자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양분(2016), 박윤수(2017)는 전국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인데, 지역의 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일부 시행된 바가 있다. 조성경 외(2018)는 경기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교과수업 시수감축이 사교육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교과수업 시수감축이 사교육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만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교과시수 감축 여부를 놓고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미시행학교와의 비교분석은 아닌 연구이다. 이필남(2020) 역시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교육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성경 외(2018)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시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사교육비나 사교육시간이 평균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학기만으로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추진하여 2017년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이 시작되었고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었다[3].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사교육참여율이 더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바가 있다(김리나, 2023). 기존의 한국교육종단자료나, 경기, 서울교육종단자료 보다 약간 뒤늦게 시행된 부산교육종단자료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실시 시간에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이다. 따라서 2020년 중학교 2학년 중에서 1학년 시기인 2019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487명,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1,898명을 대상으로 경향점수 매칭을 통해서 사교육참여가 자유학년제에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김리나, 2023). 김리나(2023)의 해당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사교육참여율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사교육비를 분석변인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고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방과후학교, EBS 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주요하게 추진해온 정책은 방과후학교와 EBS 무료 강의 정책이다. 이 두 정책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해서 문지영 외(2018)는 2017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향점수매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다. 분석결과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의 감소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 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참여가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초중학생들의 교과교육와 특기적성(예체능 등) 대한 사교육수요를 포괄해낼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일정정도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월평균 26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정도(8%

3) 자유학년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상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로 재전환되었다.

정도) 경감시키는 정도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이광현(2013)의 2010년 중학교 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8.9%~10.2%정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효과 크기로 볼 수 있다. 다만 학교급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통계청 자료에서는 중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 이전에 변수용, 김경근(2010)이 한국교육종단자료 2005~2007년에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로, 그리고 데이터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관해서는 과거 한 때 EBS-수능강의연계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비교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현정, 김양분(2012)은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EBS 수능강의 연계 정책 시행 전인 2009년과 시행 후의 2010년의 사교육비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다. 분석결과 EBS 수능강의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로 사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교과별로 보면 수학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사교육비 감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소득상위계층에게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경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효과 크기를 보면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게는 국어사교육비는 3%, 수학사교육비는 11.1%, 영어사교육비는 9.7%정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학과목에서만 약 4.6%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어나, 영어는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분석결과 EBS 수능강의를 강화하고 수능과 연계시킬 경우에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주로 소득하위계층에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예상과 달리 크지는 않다. 수학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11.1% 정도의 경감효과가 있다. 현재는 EBS 수능강의 연계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폐지되었다.

7. 교육정책들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교육비 경감정책들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정책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경감정책이 주요 표적을 어느 계층에 둘 것인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사교육에 걸맞는 수준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일반고의 교육의 질의 획기적 개선), 중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질 높은 교과 방과후학교나 정부지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산청 공립학원 사례)이 필요할 것이다.

Ⅳ.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개요와 자료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3가지의 사교육관련 주요 데이터 군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즉, 통계청의 사교육조사 자료, 교육개발원 한국종단연구 자료, 그리고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의 장단점은 아래 <표 Ⅳ-1>과 <표 Ⅳ-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데이터의 구축에 있어서 표본조사자의 연속성, 질문의 다양성, 답변의 신뢰성 등의 기준에 의하여 2013년 ~ 2020년까지 구축되어진 교육개발원의 한국종단연구 데이터 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생 고유의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실증분석을 위해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8년간의 시계열 패널데이터이다. 그러나, 동일한 학생에 대한 분석이라 하더라도 학교급별 교육과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 기간 분석과 함께 학교급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교육 유형 중 교과 관련 사교육 비중이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급별 진로 연계성 등 예체능 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체능 관련 사교육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Ⅳ-3>은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한국종단연구자료의 사교육 유형별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사교육 지출액은 입시컨설팅이 가장 높고, 학원, 개인과외, 학습지와 인터넷 강좌 순으로 높았다.

<표 Ⅳ-4>에서 가계소득구간별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크지만,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서울, 대도시 (광역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1인당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비중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또한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도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표 Ⅳ-1>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사교육 관련 Data Set의 장단점 비교

Data Set	질문의 개수	질문의 답변자	장점	단점
통계청 사교육조사 2007년~ 2018년	연도별로 질문의 개수 상이 (2018년 기준 26개)	학부모	·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간에 따른 사교육 변화와 기저 요인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 광범위한 교육비 항목을 포함한다.	· 질문의 답변자가 매년 상이하여 사교육의 장기적인 추세나 변화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교육개발원 한국종단연구 2013년 ~ 2020년	연도별로 질문의 개수 상이 (2021년 기준 27개)	학부모, 학생	· 패널데이터로 사교육 관련 데이터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 연도별로 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사교육 동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연도별로 질문이 일관되지 않아 일부 데이터는 비교에 제한이 있다. · 최신 교육 동향과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년 ~ 2022년	7개	학부모	· 매년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조사로, 시간에 따른 답변의 변화를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다. · 16차년도부터 자녀교육 관련 질문이 0세부터 미취학 이하 자녀와 취학 이상 재수생 이하 자녀로 세분화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최신데이터가 다음 해에 공표되어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	· 1차부터 15차년도까지의 자료는 미취학과 취학자녀에 대한 질문이 구분되지 않아 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이 있다. · 교육 관련 질문 개수가 다른 Data set에 비해 적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표 Ⅳ-2> 기존의 연구에서 1인당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EBS 수강여부	부모연령
가구 내 학생자녀수	부모직업지위
가구소득	부모학력
강남지역여부	사교육에 대한 동조적 성향
경쟁적 문화, 협력적 문화	서울의 구지역
교과이해도	성별
교사의 성취압력	세 자녀 이상여부
교육사다리믿음	수시전형 여부
기대교육수준	수업분위기
대기업범법수용의향	영어능력중시 성향
대입제도에 대한 부담감	이념적성향(진보, 보수)
대학수준(중위권대학여부, 일반대학여부)	자녀 연령
모 학력수준	자녀에 의한 노후 부양
문화활동	전업주부 어머니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조기유학의향
지역규모	

<표 Ⅳ-3> 사교육 유형별 1인당 지출액 (단위: 천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학원비	30,173	515.44	326.40	1.17	11442.19
과외비	8,156	492.22	408.12	5.9	6731.4
학습지/통신/인터넷	6,441	108.10	114.10	0.90	2243.8
입시컨설팅/학습코칭	294	517.69	542.78	3.34	4487.6
사교육 합계	36,056	566.22	418.72	1.17	13244.11

<표 Ⅳ-4> 가구소득구간별 1인당 사교육비

	가구소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부모소득(%)
2013-2014년 (초등학교)	하위25percentile	17.93	9.3
	25~50	24.6	7.6
	50~75	33.42	7.2
	75이상	52.06	5.6
2015-2017 (중학교)	하위25percentile	27.62	14.1
	25~50	37.79	10.7
	50~75	47.77	9.6
	75이상	65.38	7.2
2018-2020 (고등학교)	하위25percentile	42.42	15.4
	25~50	50.93	14.5
	50~75	64.14	12.8
	75이상	65.38	9.6
2013-2020 평균		48.48	9.2

<표 Ⅳ-5> 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부모소득
2013-2014년 (초등학교)	서울(Seo)	49.02	0.078
	대도시(Metropoli)	33.5	0.068
	중소도시(Small)	30.9	0.064
	읍면(town)	22.9	0.056
2015-2017 (중학교)	서울(Seo)	64.37	0.108
	대도시(Metropoli)	47.84	0.091
	중소도시(Small)	43.69	0.088
	읍면(town)	34.89	0.08
2018-2020 (고등학교)	서울(Seo)	89.13	0.137
	대도시(Metropoli)	63.62	0.119
	중소도시(Small)	57.73	0.106
	읍면(town)	47.44	0.096

<표 Ⅳ-6> 형제자매수와 1인당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부모소득
2013-2014년 (초등학교)	0	40.22	0.076
	1	34.79	0.068
	2	27.24	0.058
	3	22.31	0.059
	4이상	15.84	0.042
2015-2017 (중학교)	0	54.92	0.105
	1	48.75	0.092
	2	39.67	0.084
	3	33.89	0.09
	4이상	33.37	0.086
2018-2020 (고등학교)	0	77.28	0.145
	1	67.65	0.115
	2	55.01	0.105
	3	50.57	0.108
	4이상	39.79	0.102

2. 실증분석

그동안 학생, 학교, 가계특성과 사교육과의 연관성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개별 학생 고유의 특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적 배경 등의 이질성 (hetergeneity)을 통제하고 정책의 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교육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대학입시정책의 효과를 정책 시행 전후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시전형이 약 80%를 차지하는 현 대입 체제에서 수시전형은 동일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대학별, 학과별로 다양한 유형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 수시전형 지원을 위한 학생들의 내신 및 논술대비와 정시를 위한 수학능력시험 대비가 보완적 성격이 있고 학생들이 두 가지 이상의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형별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은 고교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으로 2014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정책 시행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다른 요인들 통제 하에 정책 전후 비교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책효과의 대표적인 예로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책 실시 전후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KEDI 종단연구는 학생별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선행학습금지법이 실시된 2014년 이전 그룹은 모두 초등학생 5학년 그룹이다. 따라서 동기간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2.3.에서는 매년 학교급별 자료가 포함된 통계청 사교육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학생 id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시계열 패널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매년 학교급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횡단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학교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종단연구자료에 비해, 통계청 자료에는 중학생들의 학교성적이 5구간[4]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가. 사교육 원인 실증분석결과

1) 사교육 원인 분석 결과

<표 Ⅳ-7>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급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적인 사교육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은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학생 id별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 가계특정적인 변수들은 사교육 지표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1), (2), (3)의 종속변수는 각각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자연로그), 1인당 월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 여부이다.

우선 공교육 만족도와 대학 진학계획은 사교육비에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학교 만족도 중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기초학력증진 및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educatisfied_dum은 1인당 월 사교육비 지출액 및 소득 대비 사교육비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

4) 상위10%, 11−30%, 31−60%, 61−80%, 80이하

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과 소득 대비 지출액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만족도는 사교육 참여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개설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관련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지출액과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 소재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planregion_seo_dum) 1인당 월 사교육비,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 참여 여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성별, 형제자매 수,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등 가계특성이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사교육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큰 경향이 있으나 사교육 참여는 여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수는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 수가 많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 참여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한 가계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 참여도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소득대비 지출액은 줄이는 경향이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의 경우에 비해 자녀 1인당 사교육 비용과 소득 대비 지출액 비중, 사교육 참여도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재직 여부는 사교육비 자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에는 부(−)의 효과, 사교육 참여 여부에는 양(+)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와 소득 대비 사교육 지출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성낙일, 홍성일 (2008)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외벌이로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능하고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지역더미변수는 모두 사교육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의 지역을 준거로 할 때, 광역대도시, 서울, 중소도시 모두 사교육 활동이 높다. 또 효과의 계수값을 비교할 때 서울에서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학교급별 사교육 원인 분석 결과

앞에서 <표 Ⅳ−7>은 학교급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적인 사교육 결정요인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중고 학교교과 운영방식과 교육정책 등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설계 및 집행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진로계획이 구체화되므로 사교육 결정요인과 중요성은 학교급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절에서는 학교급별 사교육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가) 초등학교 사교육 원인분석

<표 Ⅳ-8>은 초등학생의 사교육 결정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때부터 설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 3-2는 초등 5, 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관련 변수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가 낮을수록 초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만 약하게 유의하다. 초등 입학 전, 혹은 초등 1,2 학년때 영어 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5, 6학년때 사교육 지출액과 참여도, 소득 대비 사교육비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 관련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지출액과 사교육 참여도 모두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의 참여가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문지영 외 (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비해 초등 사교육 지출액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고 진학계획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진학계획이 있는 학생에 비해 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적은 경향이 있으나 사교육 참여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고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와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영재고 등) 진학계획이 있는 경우도 사교육비와 참여도가 모두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소득, 형제자매 수, 부모의 교육, 부모의 경제활동여부 등 가계특성이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학교급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Ⅳ-7>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 중학교 사교육 결정요인분석

<표 Ⅳ-9>은 중학생의 사교육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비해 중학생들은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가 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때 사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중학교 사교육 참여도, 지출액, 소득 대비 지출액 모두 높은 경향이 있다. 교과 관련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참여도와 지출액, 소득 대비 지출액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 수업이 사교육을 어느정도 대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소재 대학 진학 계획은 사교육 지표에 양(+)의 효과가 있으며 고교 진학계획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모두 사교육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활동이 중학교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도 초등학교와 유사하다. 즉, 부모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가 더 높고 사교육비의 소득대비 비중이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고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분석

고등학교 사교육은 학교내신 경쟁과 수학능력시험 준비 등 대학입시 준비와 관련성이 높으며, 사교육 의존도는 학생의 학업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종단연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데이터에는 학업성취도 지표가 없어서 사교육 결정요인 중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데이터에는 학생평가 항목 중 매년 3월, 6월, 9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등급 정보가 제공된다. 그런데 고교 모의고사는 학생, 혹은 학교에 따라 특정 회차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응시한 시험의 등급을 평균한 값을 그 해의 성취도 등급지표변수인 exam_369으로 산출하였다. exam_369은 1~9등급 사이의 평균등급이므로 학생의 등급이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10>에서 exam_369는 사교육 지출규모와 참여도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 참여도 모두 높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쫓아가기 위한 보완교육의 성격보다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하여 받는 강화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선행연구(김진영, 2007; 박윤수, 2018)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부모의 학업 관련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교만족도의 사교육 유발 효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표 Ⅳ-7>에 나타난 평균적인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학교때 사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도, 지출액, 소득대비 지출액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 교과 관련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참여도와 지출액과 소득 대비 지출액, 사교육 참여도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과 사교육의 대체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참여도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 학생이 전체 학생 중 9.7%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사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율고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크고 사교육 참여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특목고는 비슷한 학업성취도와 진로계획을 가진 학생들, 교사들이 모여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충·심화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된 데 비해, 일반고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수준별, 특성별 심화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 다양화, 특성화, 혹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철, 1997; 김희삼, 2009).

한편,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학교, 가계특성은 사교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은 고등학교 사교육을 학원, 개인과외, 온라인 수업 (인터넷강의 등), 입시컨설팅의 4가지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만족도는 낮을수록 학원 사교육비 지출과 개인과외 참여도를 늘리는데 비해 다른 유형의 사교육비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유형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도가 높고 학원과 개인과외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강의 지출액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소재 대학 진학계획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서울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 진학계획이 있는 학생들보다 학원 지출액과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온라인 강의 참여도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가계소득은 모든 유형의 사교육비 지출액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입시 컨설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지출액은 소득에 의한 증가효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10%로 낮고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목당 월 4~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학원, 과외, 입시컨설팅에 비해 전과목을 1년에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강의 특성상 가계소득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학교 유형과 사교육의 연관성은 사교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일수록 다른 유형의 학교 재학생들에 비해 학원비 지출액이 크고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목고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원 참여도는 높지 않지만 입시컨설팅에 참여할 경우 지출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온라인강의의 경우는 참여도와 지출액 모두 학교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책효과 실증분석결과: 선행학습금지법을 중심으로

이번 절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한 정책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 관련 사교육 효과 위주의 분석을 위해 이전 절과 같이 예체능을 제외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교과 관련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교육비는 연도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가격을 이용하였다. <그림 IV-1>은 2014년에 제정·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의 사교육 효과를 이벤트 분석법 (Event study)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학급 내 성적 등과 같은 학생 특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가계수입 등과 같은 가계특성, 학교가 소재한 도시 등의 요인[5]을 통제했을 때 신뢰도 95% 구간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효과가 나타나 있다. 왼쪽 상단 패널에서 모든 학교급 학생들의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2014년 이전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2014년 이후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했으며, 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급별 선행학습금지법의 사교육 효과는 지역, 학생의 성적, 가계수입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IV-2>은 지역별 초등학생 사교육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은 통계청 분류에 따라 광역시, (metropolitan), 서울, 중소도시, 읍면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과 읍면 단위의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후의 사교육비가 시행 이전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 실시가 성적 및 가계수입에 따라 초등학교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분석 결과는 <표 IV-12>에 나와있다. 열(1)과 (2)의 종속변수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이며, 열(3)과 (4)의 종속변수는 사교육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grade_upper와 income_upper는 각각 성적 상위 30% 이내 여부와 월평균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더미변수이다. 열(1)과 (2)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의 사교육비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인 prestudy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성적이나 가계수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는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열(4)의 결과에서 가계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사교육 참여 감소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은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한 중학교 사교육 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본 이

5) 통계청 사교육비 데이터의 가계소득은 소득액이 아닌, 100만원 단위로 100만원이하부터 700만원 (혹은 800만원)이상의 구간범위만 제공되기 때문에 각 구간을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벤트 분석 결과이다. 모든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읍면지역에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표 IV-13> 열(1)에 따르면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중학교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학생 성취도에 따라서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열(2)에서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효과는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더 현저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3)과 (4)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는 낮아졌으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한 사교육 참여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사교육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는 <그림 IV-3>과 <표 IV-13>에 나와 있다. <그림 IV-3>에서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과 (3)에서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들은 그 외의 학생들에 비해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효과가 더 크지 않지만, 사교육 참여도 증가효과는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효과는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열 (2), (4)).

다. 소결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도, 형제자매 수 등 개인특정적인 요소들과 서울지역 대학 진학계획, 학교소재 지역 특정성 등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과 사교육 유형에 따라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기도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향후 특목고나 자율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따른 사교육 성향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관련 학교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 지출액과 참여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과외, 입시컨설팅은 학생성적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커지지만, 교육비가 저렴한 온라인 강의는 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선행학습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초등학교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위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고 서울과 읍면지역은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정책 시행 이후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적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

교와 중학교에서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선행학습금지법의 사교육 효과가 더 크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가계소득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정책 시행 이후 사교육을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계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이미 사교육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정책 시행으로 더 지출을 늘릴 유인이 적은데 비해, 가계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공교육 규제 심화로 인한 불안감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7> 사교육 결정요인 (2013-2020)

	(1)	(2)	(3)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가계소득	사교육참여
edusatisfied_dum	-0.0165**	-0.00178***	-0.00146
	(0.00704)	(0.000609)	(0.00409)
afterschool_dum	-0.0688***	-0.00530***	0.00756
	(0.0116)	(0.000921)	(0.00663)
gender_dum	0.0299***	0.00106	-0.0171***
	(0.0115)	(0.000939)	(0.00641)
planregion_seo_dum	0.0628***	0.00545***	0.0639***
	(0.00856)	(0.000736)	(0.00496)
lnincome_multiplied10	0.235***	-0.0631***	0.0878***
	(0.0143)	(0.00220)	(0.00461)
sibling_num	-0.0940***	-0.00754***	-0.0399***
	(0.00861)	(0.000749)	(0.00466)
fatheredu_baccgrad	0.115***	0.00925***	0.0909***
	(0.0144)	(0.00126)	(0.00842)
motheredu_baccgrad	0.0750***	0.00815***	0.0771***
	(0.0139)	(0.00115)	(0.00801)
fatherwork3_dum	0.0206	-0.00571***	0.0834***
	(0.0210)	(0.00210)	(0.0111)
motherwork3_dum	-0.0415***	-0.00327***	-0.000481
	(0.0119)	(0.000979)	(0.00671)
지역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33,275	33,263	49,895
학생수	6,707	6,706	7,297
R-squared	0.251	0.271	0.1373

<표 Ⅳ-8> 초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1)	(2)	(3)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가계소득	사교육참여
edusatisfied_dum	−0.0207*	−0.00182*	0.000502
	(0.0124)	(0.00105)	(0.00707)
eng_pre_12_dum	0.114***	0.00951***	0.0732***
	(0.0146)	(0.00137)	(0.00814)
afterschool_dum	−0.0495***	−7.60e−05	−0.0363***
	(0.0186)	(0.00151)	(0.0101)
gender_dum	−0.0166	−0.000650	−0.0131
	(0.0154)	(0.00119)	(0.00820)
planregion_seo_dum	0.0433***	0.00194	0.0508***
	(0.0153)	(0.00142)	(0.00850)
planhighsch_general_dum	0.0324	−0.00363*	0.0611***
	(0.0204)	(0.00194)	(0.0108)
planhighsch_free_dum	0.127***	0.00474**	0.0960***
	(0.0264)	(0.00226)	(0.0136)
planhighsch_special_dum	0.162***	0.00572***	0.0880***
	(0.0235)	(0.00209)	(0.0124)
lnincome_multiplied10	0.301***	−0.0531***	0.139***
	(0.0229)	(0.00444)	(0.00974)
sibling_num	−0.0854***	−0.00584***	−0.0378***
	(0.0120)	(0.00108)	(0.00599)
fatheredu_baccgrad	0.0764***	0.00619***	0.0362***
	(0.0194)	(0.00165)	(0.0109)
motheredu_baccgrad	0.0230	0.00368**	0.0216**
	(0.0191)	(0.00152)	(0.0103)
fatherwork3_dum	−0.0236	−0.00637*	0.0473***
	(0.0323)	(0.00351)	(0.0162)
motherwork3_dum	−0.0555***	−0.00410***	0.00644
	(0.0158)	(0.00124)	(0.00857)
지역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10,089	10,087	13,812
학생수	5,969	5,968	7,235
R-squared	0.200	0.202	0.122

<표 Ⅳ-9> 중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변수	(1) 사교육비	(2) 사교육비/가계소득	(3) 사교육참여
edusatisfied_dum	0.00119	−0.000147	0.00932
	(0.00964)	(0.000766)	(0.00608)
elem_private	0.339***	0.0193***	0.355***
	(0.0303)	(0.00221)	(0.0124)
afterschool_dum	−0.0863***	−0.00692***	−0.0615***
	(0.0220)	(0.00150)	(0.0136)
gender_dum	0.0346**	0.00134	0.00335
	(0.0137)	(0.00105)	(0.00740)
planregion_seo_dum	0.0564***	0.00379***	0.0327***
	(0.0123)	(0.00101)	(0.00758)
planhighsch_general_dum	0.0727***	0.000770	0.169***
	(0.0222)	(0.00200)	(0.0136)
planhighsch_free_dum	0.103***	0.00328	0.167***
	(0.0323)	(0.00273)	(0.0201)
planhighsch_special_dum	0.152***	0.00639	0.176***
	(0.0392)	(0.00481)	(0.0245)
lnincome_multiplied10	0.243***	−0.0583***	0.0727***
	(0.0240)	(0.00207)	(0.00633)
sibling_num	−0.0759***	−0.00734***	−0.0240***
	(0.0102)	(0.000846)	(0.00571)
fatheredu_baccgrad	0.116***	0.00855***	0.0700***
	(0.0180)	(0.00138)	(0.00978)
motheredu_baccgrad	0.0497***	0.00607***	0.0572***
	(0.0174)	(0.00134)	(0.00928)
fatherwork3_dum	0.00961	−0.00632***	0.0595***
	(0.0260)	(0.00228)	(0.0132)
motherwork3_dum	−0.0516***	−0.00404***	−0.00817
	(0.0143)	(0.00110)	(0.00770)
Region FE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Observations	13,432	13,426	18,860
Number of stuid	5,738	5,738	6,776
R-squared	0.201	0.263	0.127

<표 Ⅳ-10> 고등학교 사교육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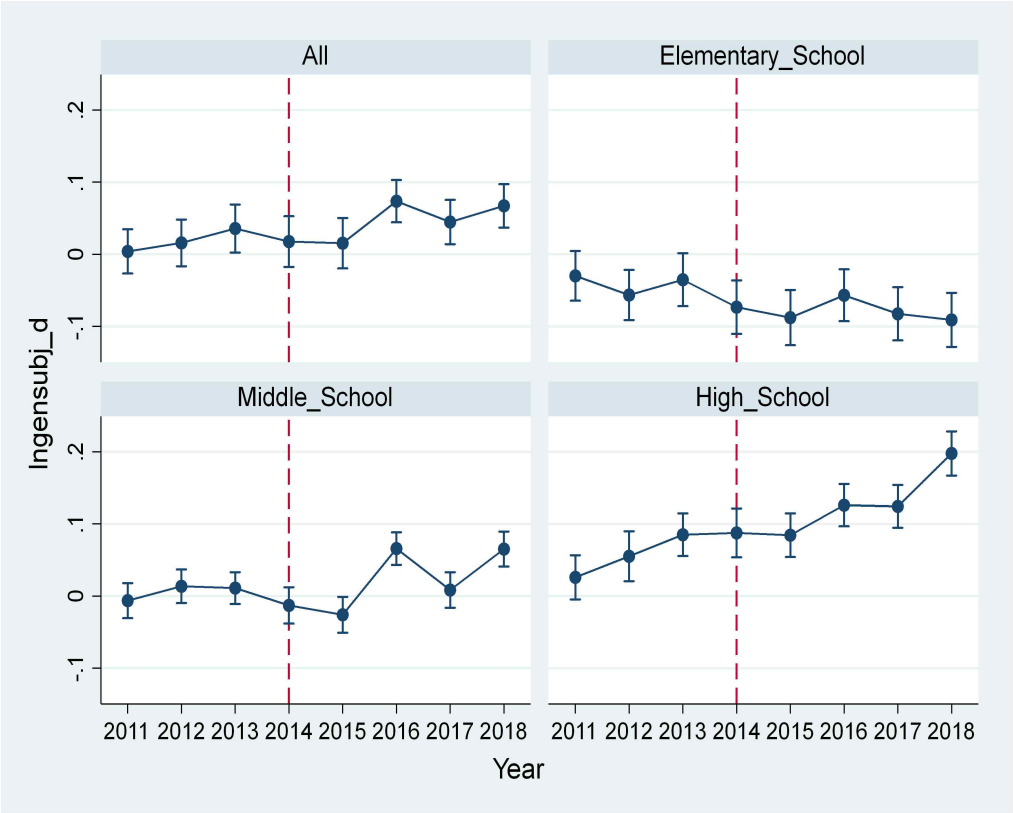
	(1)	(2)	(3)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가계소득	사교육참여
edusatisfied_dum	-0.0272**	-0.00343***	-0.0165**
	(0.0130)	(0.00121)	(0.00732)
middle_private	0.272***	0.0170***	0.283***
	(0.0528)	(0.00453)	(0.0157)
afterschool_dum	-0.0887***	-0.00908***	0.0221**
	(0.0188)	(0.00156)	(0.00987)
gender_dum	0.0843***	0.00368**	0.00696
	(0.0168)	(0.00153)	(0.00888)
exam_369	-0.0576***	-0.00407***	-0.0787***
	(0.00571)	(0.000501)	(0.00286)
planregion_seo_dum	0.0414***	0.00695***	0.0120
	(0.0150)	(0.00134)	(0.00858)
lnincome_multiplied10	0.210***	-0.0747***	0.0515***
	(0.0210)	(0.00285)	(0.00609)
sibling_num	-0.0912***	-0.00751***	-0.0175***
	(0.0132)	(0.00117)	(0.00631)
fatheredu_baccgrad	0.0651***	0.00734***	0.00149
	(0.0219)	(0.00209)	(0.0114)
motheredu_baccgrad	0.0491**	0.00672***	0.0385***
	(0.0210)	(0.00183)	(0.0111)
fatherwork3_dum	-0.0191	-0.00936***	0.00370
	(0.0334)	(0.00345)	(0.0155)
motherwork3_dum	-0.00885	-0.00111	0.00617
	(0.0182)	(0.00166)	(0.00923)
highsch_general	0.471***	0.0438***	0.307***
	(0.0281)	(0.00252)	(0.0453)
highsch_free	0.479***	0.0416***	0.306***
	(0.0354)	(0.00323)	(0.0472)
highsch_special	0.419***	0.0623***	0.117**
	(0.0682)	(0.00648)	(0.0512)
highsch_work	0.118	0.0250***	0.0696
	(0.0911)	(0.00711)	(0.0497)
Region FE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Observations	14,274	14245	14274
Number of stuid	5,341	5,338	5,341
R-squared	0.246	0.151	0.211

<표 Ⅳ-11> 고등학교 사교육 유형별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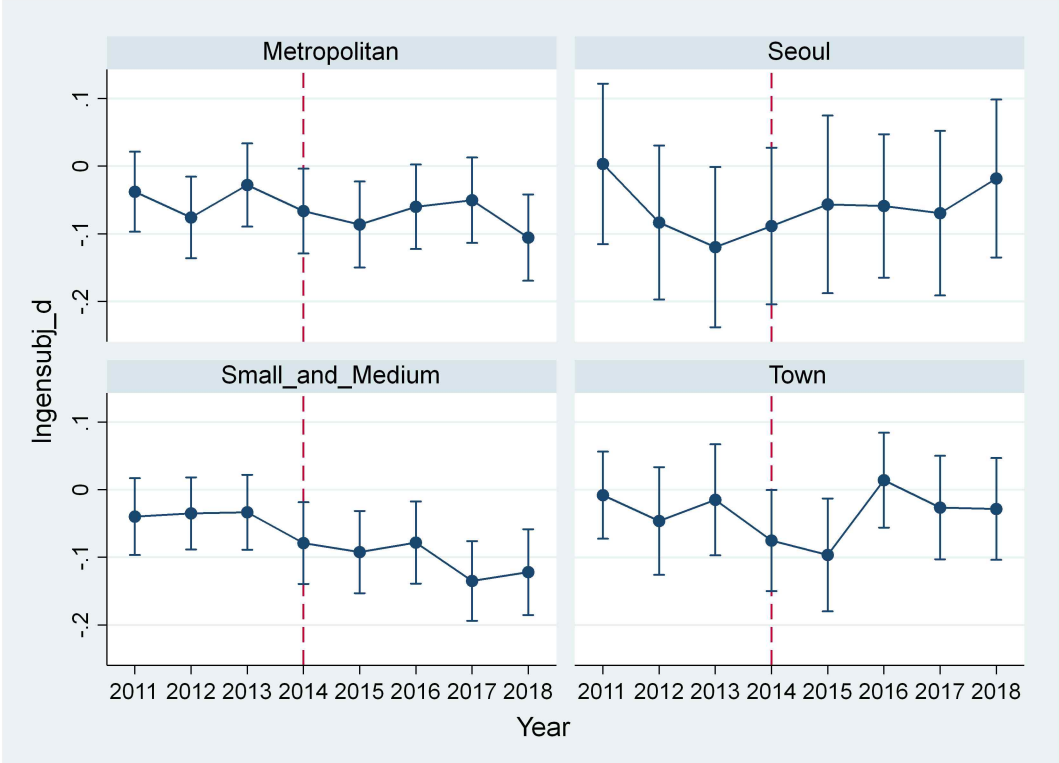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변수	학원비	과외비	온라인강의료	입시컨설팅비	학원 참여	과외 참여	온라인강의 참여	입시컨설팅 참여
edusatisfied_dum	-0.0298***	-0.0212	-0.0547	-0.156	-0.00747	-0.0168***	0.00311	0.000880
	(0.0114)	(0.0219)	(0.0517)	(0.104)	(0.00783)	(0.00627)	(0.00507)	(0.00235)
gender_dum	0.0975***	0.0644**	0.131**	0.111	0.0298***	-0.0284***	-0.0108**	-0.00422*
	(0.0136)	(0.0255)	(0.0547)	(0.109)	(0.00996)	(0.00781)	(0.00544)	(0.00241)
exam_369	-0.0564***	-0.0239***	0.0713***	0.0376	-0.0738***	-0.0196***	-0.0212***	-0.00550***
	(0.00463)	(0.00925)	(0.0205)	(0.0381)	(0.00298)	(0.00236)	(0.00175)	(0.000789)
planregion_seo_dum	0.0277***	0.0236	0.0797	0.137	0.0251***	0.00546	0.0172***	0.00408
	(0.0131)	(0.0232)	(0.0616)	(0.165)	(0.00879)	(0.00704)	(0.00565)	(0.00261)
lnincome_multiplied10	0.152***	0.256***	0.0879*	0.283***	0.0496***	0.0356***	0.00337	0.0131***
	(0.0168)	(0.0271)	(0.0485)	(0.0908)	(0.00638)	(0.00509)	(0.00397)	(0.00182)
sibling_num	-0.0634***	-0.0908***	-0.0124	0.0280	-0.0193***	-0.0155***	-0.00208	-0.00226
	(0.00982)	(0.0183)	(0.0394)	(0.0749)	(0.00687)	(0.00538)	(0.00376)	(0.00167)
fatheredu_baccgrad	0.0330*	0.107***	0.0938	0.527**	0.00990	0.0108	0.00939	0.000821
	(0.0177)	(0.0323)	(0.0701)	(0.265)	(0.0124)	(0.00976)	(0.00681)	(0.00302)
motheredu_baccgrad	0.0249	-0.0103	-0.0605	-0.0484	0.0249**	0.0404***	0.0108	0.0109***
	(0.0172)	(0.0320)	(0.0684)	(0.225)	(0.0122)	(0.00955)	(0.00666)	(0.00296)
fatherwork3_dum	-0.0155	0.0319	0.0965	-0.0853	0.00748	0.00226	0.000164	-0.00392
	(0.0261)	(0.0566)	(0.109)	(0.252)	(0.0171)	(0.0134)	(0.00936)	(0.00416)
motherwork3_dum	-0.0143	-0.0242	0.0301	0.108	0.000797	0.0111	-0.00131	0.000374
	(0.0143)	(0.0267)	(0.0561)	(0.119)	(0.0103)	(0.00808)	(0.00563)	(0.00250)
highsch_general	0.313***	0.275***	-0.00826	0.936***	0.320***	0.0871	0.0508	-0.0429

	(0.0224)	(0.105)	(0.253)	(0.259)	(0.119)	(0.0933)	(0.0668)	(0.0300)
highsch_free	0.305***	0.242**	0.123	0.931***	0.280**	0.125	0.0412	-0.0491
	(0.0290)	(0.112)	(0.263)	(0.279)	(0.120)	(0.0940)	(0.0672)	(0.0302)
highsch_special	0.309***	0.234*	-0.00407	1.584***	0.151	0.0866	-0.00407	-0.0370
	(0.0495)	(0.123)	(0.293)	(0.348)	(0.122)	(0.0955)	(0.0683)	(0.0307)
highsch_work	0.105			0.867**	0.0529	0.0576	0.0299	-0.0414
	(0.0742)			(0.412)	(0.121)	(0.0951)	(0.0680)	(0.0306)
지역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7,433	2362	1,367	273	14,274	14274	14,274	14274
학생수	3,577	1,493	1,056	233	5,341	5,341	5,341	5,341
R-squared	0.200	0.181	0.039	0.157	0.165	0.037	0.039	0.036

[그림 Ⅳ-1]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그림 Ⅳ-2]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초등학교 지역별



<표 Ⅳ-12>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초등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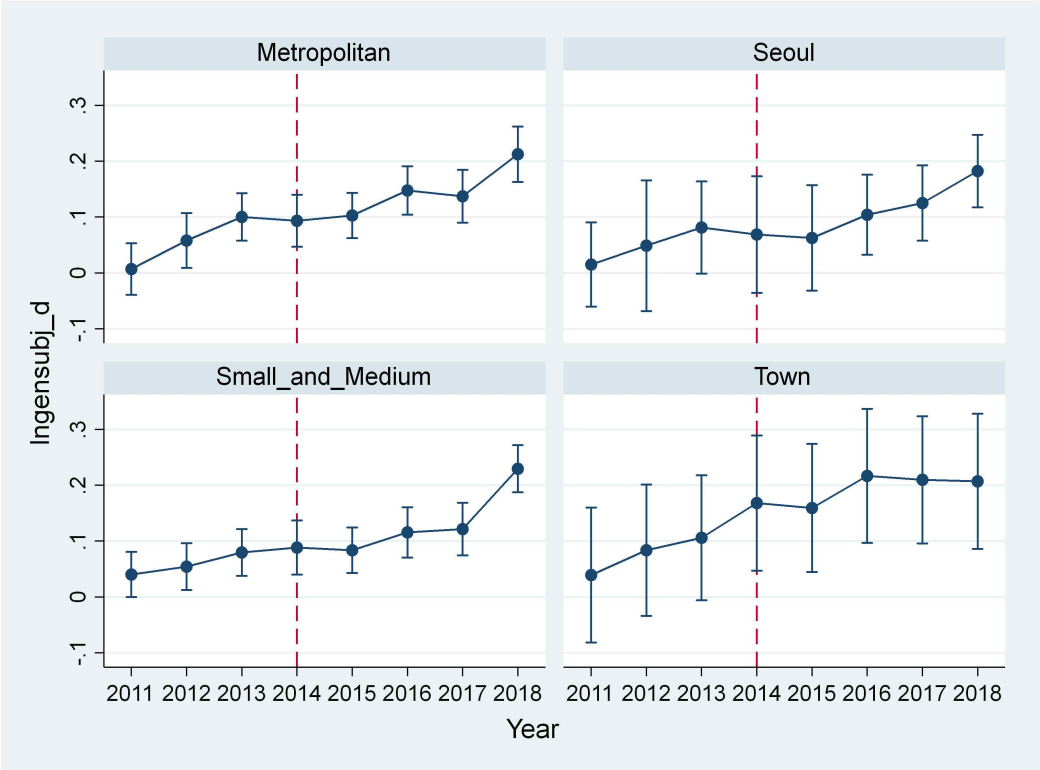
	(1)	(2)	(3)	(4)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참여	사교육참여
l.grade_upper	0.0949***		0.0798***	
	(0.00616)		(0.00355)	
l.prestudy	0.0278	-0.00799	-0.0466***	-0.0891***
	(0.0206)	(0.0208)	(0.00795)	(0.00778)
l.prestudy X l.grade_upper	-0.00238		-0.00801	
	(0.0104)		(0.00569)	
income_upper		0.312***		0.117***
		(0.00855)		(0.00399)
l.prestudy X l.income_upper		0.0113		0.0145**
		(0.0127)		(0.00566)
개인특정적 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가족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도시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96,618	96,618	162,419	162,419
R-squared	0.093	0.090	0.042	0.049

<표 Ⅳ-13>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중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1)	(2)	(3)	(4)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참여	사교육참여
l.grade_upper	0.106***		0.166***	
	(0.00507)		(0.00355)	
l.prestudy	0.124***	0.0689***	-0.0073	-0.0539***
	(0.0140)	(0.0138)	(0.00699)	(0.00703)
l.prestudy X l.grade_upper	0.0122		0.00955*	
	(0.00811)		(0.00545)	
income_upper		0.237***		0.133***
		(0.00694)		(0.00362)
l.prestudy X l.income_upper		0.0373***		-0.00785
		(0.00988)		(0.00525)
개인특정적 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가족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도시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106,250	106,250	171,642	171,642
R-squared	0.137	0.131	0.104	0.093

[그림 Ⅳ-3]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고등학교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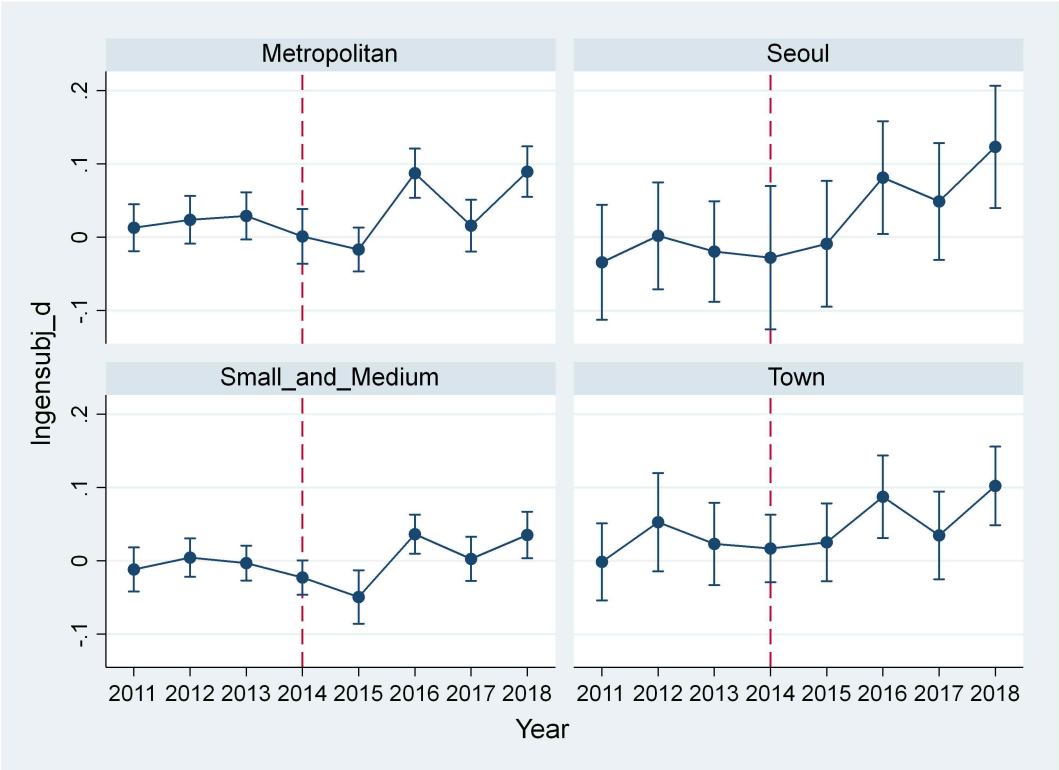


<표 Ⅳ-14>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에 미친 효과:
고등학교 성적과 가계수입별

	(1)	(2)	(3)	(4)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참여	사교육참여
1.grade_upper	0.0305***		0.133***	
	(0.00556)		(0.00349)	
1.prestudy	0.114***	0.134***	0.0470***	0.0407***
	(0.0173)	(0.0175)	(0.0136)	(0.0134)
1.prestudy X 1.grade_upper	0.0127		0.0228***	
	(0.00807)		(0.00476)	
income_upper		0.261***		0.151***
		(0.00623)		(0.00350)
1.prestudy X 1.income_upper		-0.0317***		-0.0302***
		(0.00977)		(0.00492)
개인특정적 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가족요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도시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131,733	131,733	275,609	275,609
R-squared	0.161	0.160	0.087	0.084

[그림 Ⅳ-4]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의 사교육 효과:
중학교 지역별



V. 정책적 시사점

1. 대학생, 현직교사, 연구진과 전문가의 세미나

앞에서 논의된 사교육의 현황분석, 사교육 연구에 대한 조사, 사교육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본 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좀 더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1) 2024년 대학교 신입생, 2) 현직, 초-중-고 교사, 3) 본 연구진과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4년 대학교 신입생 세미나

2024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위하여 3월 4일, 4월 1일, 5월 27일 3회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 15명의 대학생들과 세미나를 통하여 사교육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대학교 신입생들이 경험하고 지적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다음의 5가지로 정리되었다.

1.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교육의 질이 낮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2. 공교육 교사의 업무량. 공교육 교사의 행정 업무량 또한 앞서 말한 공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3.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생긴다. 4. 주변 환경. 학구열이 높고 대학 입시에 경쟁적인 환경에 노출될수록 대학 입시에 특화된 사교육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학벌주의와 대입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선 학벌과 대입이 중요하기에 사교육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당장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학벌주의나 경쟁의식, 대입의 중요성은 없애기 힘들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고 내신 경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내신 5등급제, ABC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과 사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시행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목과 일치한 과목을 공교육에서 수업을 하되, 대학교에서 자유전공 혹은 무

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확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탐색하는 것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대학에 입학한 후 대입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경험을 하고 진로에 맞춰 학과를 결정하는게 나을 것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지적한 사교육의 원인과 해결책은 본 보고서에서도 논의한 공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사교육의 대체와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장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제한하거나 대학에서의 전공 결정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진다.

나. 현직 교사 대상 세미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세미나는 ZOOM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중학교 선생님 (경남, 42세, 남자)

1.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사회에서의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빠르게는 영어유치원부터,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학, 논술, 과학실험 / 중고등학교는 내신과 대입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함.

2. 공교육의 질적 문제:
학교 교육과정이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음. (특히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좋은 진학 결과를 얻기 어려움. 또한 학교 교육이 너무 내신 중심, 대입 중심으로만 맞춰져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던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3. 돌봄의 문제:
맞벌이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하교 후 학생을 완전히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놀 바에는 학원을 돌리는게 공부도 하고, 관리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 보내기도 함.

B. 중학교 선생님 (서울, 46세, 여자)

1.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좋은 대학, 좋은 직업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2. 대학 입시 경쟁: 초등 이전부터 대입을 목표로 사교육을 진행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짐.

3. 돌봄 기능: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도 학원에 가지 않으면 맞벌이 부모는 케어가 어려움.

C. 고등학교 선생님 (경기, 46세, 여자)

1. 초등은 아무래도 돌봄 기능이 큰 것 같고, 다들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 고등학교에서 혼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도 다들 학원을 다니니까 블안감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음.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3.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학벌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 치열한 경쟁 사회

D.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사 (경기, 46세, 여자)

1. 초등학생: 1)부모가 맞벌이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2)선행이 필요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2. 중학생: 상급 학교 진학 대비(자사고 외고 등)

3. 학부모 입장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1)남들이 다 하니까, 2)학교성적이 안 나와서, 3)사교육이라도 안 하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4)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해서

E. 초등학교 선생님 (46살. 남자 교사. 부장교사)

1. 보육 혹은 돌봄: 초등학교는 보육적인 측면에서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임. 즉 학교에서 집으로 와서 있는 것보다 학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함임. 이 경우 특별하게 뭘 배우게 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경우.

2. 주변 학부모들이 다 보내기 때문에(사회적 압력): 주변 친구들이 모두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같은 것을 느낌. 그래서 학원에 보내게 됨.

3. 학교 이후에 공부를 시키기 위함: 집에 있으며 아무래도 자율적인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F. 고등학교 선생님(53살. 여자교사. 정보 교사)

1. 학교 교육 불만족: 교사들도 현실적으로 학교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학원에서 보충수업 입시수업을 받는 것이 당연함.

2. 대입 준비(와 불안감):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과거에 사법고시 시험 준비 학원이 있듯이 학원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생기게 됨.

3. 자녀의 요청: 자녀가 원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부모의 재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보내게 됨.

G. 초등학교 선생님(34살. 남자교사. 일반평교사)

1.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분야: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없는 예술분야는 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교양교육이 한국 학교에서 부족한 것 같음.
2. 친구가 학원을 다니기 때문: 친한 친구가 00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같이 다니고 싶어하게 됨. 부모 입장에서도 보낼 수 밖에 없음. 특히 아이가 학원에 가기를 원하는데 안보내기에는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음.
3. 맞벌이 부모의 걱정: 맞벌이하는 경우 부모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관리해주기를 원하기 때문. 특히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맞벌이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학원에 절대적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임.

H. 부산 고등학교 교사

1. 평가권과 환류 비작동탓: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 이후의 피드백도 잘 안되기 때문이라 생각됨.
2. 빗나간 인성교육: 늘 경쟁 없이 토닥이기만 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면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됨.

I. 경기도 S초등학교 교사

1. 평가권의 상실 - 평가는 나쁘다는 선입관을 없애야 함.
2. 수준별 수업의 폐지 - 학교에는 경쟁이 없으니 학원으로 가서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함
3. 교사 업무 과다 및 시수 과다 -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시간의 부족
4. 전교조
5. 무상교육의 부문별한 확대
6.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나머지 공부도 못시키는 현실
7. 유급제, 혹은 유급제에 준하는 기준이 없는 진급

J. 경기도 C초등학교 교사

1. 보육을 위한 사교육: 사교육 시장은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지, 늘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관건인 것 같음.
2.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3. 공교육에서 경쟁의 실종

다. 연구진과 교육전문가들과 세미나

6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본 연구진과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 전문가들은 본 연구진의 보고서 내용과 정책제안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함.

A. Y교수, 경제학

사교육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중층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조건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임.

B. K교수, 교육학

사교육의 원인으로 교과과정의 방대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의 자연발생과 성장을 유도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도 중요한 원인이다.

C. L교수, 교육학

사교육의 원인으로서 불안, 시험, 경쟁이 3가지 중요한 원인인 듯함.

D. H교수, 뇌인지학

사교육의 원인은 부모의 왜곡된 불안감과 경쟁심에 있다. 아이들은 막상 사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있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예를 들어 대치동으로 이사 가서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보는 학생은 소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더 좋은 대학간다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부모들의 불안감과 경쟁심이 사교육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2.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본고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효과의 예시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운영과 출제를 전면금지하였다. 그러나 사교육은 민간영역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불가능하여[6] 선행 광고

만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는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중고등학교의 사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억제를 위한 다른 유형의 정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전후로 시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사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 (박윤수, 2017)도 이를 뒷받침한다. 진로탐색을 위해 중간·기말시험을 없애서 학생부담을 줄이고 교육을 약화시킨 자유학기제가 소득 상위계층에게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여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유학년제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중학교 1학년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대학입시정책 역시 지난 70여년 간의 개혁 목표가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그간 교육당국이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감소를 기대하고 학생 잠재력에 근거한 선발방식인 학생부전형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그림 5)은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80%까지 늘어나며 내신의 사교육 유발효과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경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기혜 외, 2017; 이혜정, 박성희, 2020). 입시제도의 내용과 형식이 교육열의 과열화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승실, 2003). 선행학습금지법,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시 위주의 대입정책 등의 정책이 학생부담과 사교육 경감, 다양한 진로활동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평가, 범위 축소 등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서 학업성취도 우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족과 불안을 키워 역설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과의 학력격차를 벌리는 역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분석결과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 특히 학생 성취도와 공교육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성적 향상을 위한 선행과 심화수업 수요가 높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녀수와 사교육이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세대당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인당 사교육비는 늘고 있는 추세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지 않은 사교육 억제정책들은 풍선효과로 향후 사

6) 1980년에 도입된 사교육금지법은 2000년에 위헌판결이 난 바 있다.
7)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교육 수요만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교육 정책은 최근의 교육력 약화 기조에서 벗어나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운영 내실화와 수준별 심화수업 강화,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 다양한 분야의 학교 설립, 운영 및 학교선택권,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대입전형자료개혁으로 대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사교육 수요 자체를 잠재우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 및 수준별 수업

IV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 입학 전, 혹은 초등 1, 2학년때 영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 5, 6학년 사교육 지출액과 참여도,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정규과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는데 초등 입학 후 1, 2학년에는 영어가 정규과정에 없으므로 이 기간에 영어교육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영어 정규교육을 초등 1학년부터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공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IV장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과 관련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지출액과 사교육 참여도 모두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장의 선행연구분석에서도 EBS 수능연계정책이나 방과후학교는 성적 상위권이나 소득 상위 계층에는 유의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에게는 약 10% 내외의 경감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위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을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수업과 방과후수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하위권 학생들의 과목별 학력결손 보충과 사교육 절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학력평가 (기초학력평가 포함) 정착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 방과후수업 인건비 현실화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로 표현되는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확대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 적성,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고의 일방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학생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고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수요의 가변성으로 인한 선택과목 개설의 불안정성, 백화점식 과목확대로 인한 심화수업 약화, 학교간, 지역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확대, 필수과목 대폭 축소(국어, 영어, 수학 105시간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 등의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교육력은 약화되고 오히려 사교육 수요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고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고가 특정분야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의 40~50%를 그 분야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학부모·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AI·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집중고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교과집중고에 특정 교과군의 교사들이 모여 연계성이 있는 다양한 과목 및 심화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되면, 적성과 진로가 유사한 학생들 간 시너지 효과와 심화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제고로 특목고, 자사고 등과 교육적 경쟁이 가능한 일반고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고에 일률적으로 도입되는 백화점식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각 학교 특성에 맞는 교과집중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대입제도가 고교과정에서의 사교육 축소를 목표로 자주 바뀌는 것은 입시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 확대로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폐기하고 대입전형자료 자체의 개혁으로 장기적으로 대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시 위주의 현행 대입체제에서 정량지표인 상대평가 9등급제에 기반한 내신등급은 학생부교과전형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사교육 유발효과가 크다. 각 학교별 전교생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급우 간 치열한 내신경쟁에서 상대평가 과목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주입식 암기 사교육과 학원 의존증은 심해지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내신은 학교마다 교과서, 출제 경향, 난이도 등이 모두 달라 과목당 월 30~50만 원 수준의 동네 학원을 꾸준히 이용해야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고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내신이 3학년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크고 내신 시험기간에 수행평가 부담으로 지필고사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고교과정 선행을 위한 중학교 사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선택과목들의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목이 아닌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하고 학교 간 학력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기관을 통해 개별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여 학생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능정책도 사교육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간 교과와 수능 과목 및 범위의 지속적인 축소, 통합형 수능 정책이 학력저하 문제와 사교육 확대의 악순환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양과 자질평가라는 수능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불필요한 킬러문항에 의한 사교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과에서 제외된 개념들을 다시 포함하여 수능공통과목의 범위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교육부(2023a).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교육부 보도자료(2023.3.7.).

교육부(2023b).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 보도자료(2023.6.26.).

김경근, 황여정(2009).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5(1), 77-105.

김진영 (200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공공경제, 12(2), 119~151.

김현진, 김미혜(2014).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잠재성장모형(LGM)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85-106.

김희삼(2019). 사교육 수요에 관한 행태적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1(4), 187-235.

박소영(2017).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전후 사교육 영향력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7), 79-87.

박윤수(2017). 자유학기제 효과성 연구(연구보고서 2017-13). 세종:한국개발연구원.

박윤수, 강창희, 고영우(2018). 대학규제와 사교육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18-09). 충북:한국교육개발원.

박윤수, 강창희, 고영우(2021). 지역별 대학 입학경쟁률과 사교육 투자. 노동경제논집, 44(4), 1-28.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백일우, 김민선(2014).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고찰: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27(2), 1-26.

변수용, 김경근(2010).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3), 51-81.

신현석, 윤지희(2020). 시스템 사고에 의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 분석: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7(4), 87-123.

양승실 (2003).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2003-4). 한국교육개발원.

우시민, 김경식(2021). 어머니의 사교육 실천의 구조적 원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를

활용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4), 101-140.

유재봉, 강문숙(2020).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 경감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육문화연구, 26(3), 163-189.

윤유진(2017).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 및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효과. 방과후학교연구, 4(1), 37-61.

이덕난, 유지연(2022).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제247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이수정(2018).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923-944.

이종학, 김유영, 윤마병(2019). 예비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통한 교육대학 입학과 사교육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132-143.

임현정, 김양분(2012). EBS-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4), 155-177.

정동욱, 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이호준, 한유경(2012). EBS 교육 프로그램의 사교육 경감 효과 분석: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3), 21-42.

조시정(2023). 초중고등학생들의 월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 추이 분석: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1), 165-187.

조영진, 권순형, 김도기, 문영빛(2015).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287-308.

지은림, 김경숙, 차정민, 정연재(2014). 전형유형별 사교육 요인 탐색. 입학전형연구, 3, 111-128.

김범수, 강소랑(2017).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22(2), 73-100.

김지하(2009). 학원교습시간 규제의 사교육 수요경감 효과 분석: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4), 465-487.

백일우, 박명희(2013). 세계 사교육시장과 정책 동향 분석. 비교교육연구, 23(6), 1-34.

윤정일 외(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유재봉, 최현영(2018). 동유럽 국가의 사교육 동향 비교: 시장논리로 본 사교육. 비교교육연구, 28(3), 1-22.

중앙일보, 2019.7.17. 창가리고 수업 또 조장하나.조희연, 학원 일요휴무 논란.
https://v.daum.net/v/20190726000813256

뉴스1. 학원심야 영업시간 제한해야. 2016.9.15.
https://v.daum.net/v/20160905150650426

법률신문(2016.6.7.). 헌재,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https://www.lawtimes.co.kr/news/100982

https://v.daum.net/v/20050407110342081

뉴스1. 2023.8.16. 울산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등 현안 의견청취 간담회.
https://v.daum.net/v/20230816151141313

일요서울(2020.6.19.). 학원 일요휴무제, 태영호 “정부 일자리 창출 흐름에 맞는지 의문”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00

한국경제(2021.6.21.). 학원 일요휴무제, 군불 때는 서울시 의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2112481

광주드림(2021.3.5.). 일요일엔 좀 놀자.학원일요휴무제 호응.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342

국민일보(2020.1.7.). 학원일요 휴무제요? 서울서 못하면 경기도로 가죠.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6733&code=11131100&cp=nv

OECD(2013). PISA 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Ⅳ), PISA. OECD Publishing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OECD Publishing